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6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07 호

총계 한국밀교학술대회 개최

대주제 '육자진언 염송과 밀교의 관법'



2025 한국밀교학회 총계 학술대회가 본산 총지사에서 지난 5월 22일 개최됐다. 대주제 '육자진언 염송과 밀교의 관법'으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총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서울경인교구 소속 스승과 진각종 총리원장 능원 정사, 한국밀교학회장 정법 정사(진각종 교육원장),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현강 정사 등 한국 양대 밀교 종단의 스승과 학회 관

계자 및 학자, 교도들이 동참했다.

총리원장 록경 정사는 축사에서 "학술대회가 불교총지중 본산인 총지사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밀교 수행의 지혜가 더욱 깊이 있게 탐구되고 나아가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과 응용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 축사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밀교학회장 정법 정사는 "한국밀교를 선도하고 있는 진각종과 총지중이 힘을 합쳐 7번째 학술대회를 열어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과 같다"면서 "학술대회의 성과물들이 널리 퍼져서 세상의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한국밀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짐

종/조/법/어

부귀하면 교만하기 쉽고 빈처하면 아첨하기가 쉽다.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으면 이를 성불했다 하리라.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의 통합 발행을 알려드립니다

성도합니다.

늘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를 애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풍부한 소식과 콘텐츠로 읽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2025년 6월호부터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문의 규격을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변경하여, 시각적으로 정돈된 편집으로 읽기 편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종단 소식은 물론 불교계를 아우르는 뉴스를 제공하고, 신심을 높이며, 불교의 깊이 있는 해석과 통찰로 교화 발전과 밀교 흥포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 잡지의 감성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총지신문> 하나의 매체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믿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교도와 구독자 여러분께 더 좋은 소식과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발행인 총리원장 록경 합장

지면안내

6,7면

10,11면

15면

21~40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부처님 오신날 봉축화보
서원당안의 불교
위드다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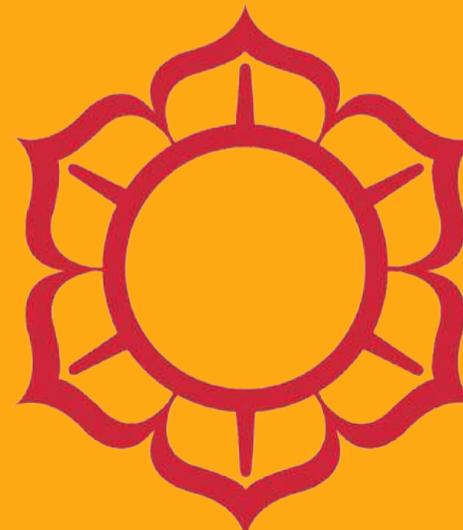
총기 54년 하반기 49일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총기 54년 5월 28일(수) ~ 7월 15일(화)

장소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1면에서 이어짐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총지종과 진각종,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고 있다”며 “한국밀교학회의 노력과 발전, 종도들의 서원과 정진으로 밀엄정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강향임 학술연구교수의 ‘오상성신관의 이론과 실수 고찰’을 비롯해 △티베트 불교의 육자진언

‘대비존 염송법’을 중심으로(박영빈·동국대) △관세음보살 신앙과 육자진언 수행의 윤리적 의미(오현희·한국외국어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자륜관과 월륜관의 형성과 전개(강향숙·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인도밀교의 입장에서 해설하는 불교의 교의 체계

(naya)의 특징-Nayatrayapradipa의 논의를 중심으로(방정란·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등의 다섯 논문이 발표됐으며, 법천사 주교 화령 정사를 비롯해 한림대 양정연 교수, 강대현 위덕대 연구교수, 정성준 동국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석했다. 박재원 기자



‘스승의 날’ 맞아 전국서 ‘보은 행사’

서울경인교구, 정각사 등 감사의 꽃다발

지난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는 스승의 날 보은 행사가 열렸다. 신정희 서울경인교구지회(지회장: 노진숙)가 지난 19일 경기

도 하남의 한 식당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령 지성 예하를 비롯해 통리원장 록경 정사 등 서울

경인교구 소속 기로, 현직 스승과 교도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교도들은 스승에게 감사의 붉은 칼라꽃 화분을 전달하고, 다 함께 ‘스

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음성 공양을 올렸다.

이에 앞서 부산 정각사 교도들도 11일 자성일에 스승의 날을 미리 기념하여 주신제 기로 스승과 주교 법일 정사, 자행정 전수에 감사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사진은 서울경인교구(좌)와 부산 정각사(우) 스승의 날 행사 모습.

수인사, 신심 높이는 삼사순례

24일, 서산 간월암·부석사까지



포항 수인사가 지난 5월 24일 서산 간월암에서 서산 부석사까지 삼사순례를 다녀왔다. 주교 법상 정사와 정원심 전수를 비롯한 교도 46명은 전날부터 도시락을 준비해 새벽 일찌감치 수인사를 출발해 사찰을 돌며 참배하고 신심을 높였다.

한편, 간월암은 간조 시 육지와 연결이 되고, 만조 시 섬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부석사

는 현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으로 유명하다. 본래 부석사 소유였으나 분실,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발견되어 반환을 요청했으나 절 측은 거절했다. 그 후 절도범이 이 좌상을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 이에 관음사는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대법원이 반환하라는 판결로 647년 만의 귀향이 끝나고, 12년 만에 다시 일본에 돌아갔다.

석관센터, ‘실버 맞춤형 헬스장’

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관 최초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록경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관 중 최초로 실버 맞춤형 헬스장을 조성하며, 어르신 건강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9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호건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인사가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헬스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초빙된 김수현 JK산업 대표, 김용수 인권운동가, 유혜인 아리필라테스 대표가 함께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리본 커팅식을 진행했으며, 어르신 이용자 30여명도 현장에 참석해 첫 이용을 함께 축하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2천만원 희사

통리원장, 환동해지역본부 찾아 전달



종단과 전 교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인 성금 중 2000만 원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경상북도에 직

접 전달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와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범상 정사는 지난 4월 30일 포항 수인사 정원 전수를 비롯해 신정희 이남이, 수인회 최민애 회장과 함께 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를 방문하고 이영석 본부장을 직접 만나 성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은 “소중함을 모아준 불교총지종 신도분들과 복지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비롯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

사 인사를 전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경상북도는 우리 종단의 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단의 역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어서 더욱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고 전제하고,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우리 교도들도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희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종단은 4월 월초 불공 기간 동안 교도들의 성금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힘을 보태 산불 피해 돕기 기금으로 5000만 원을 종단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번 희사에 앞서 의성고운사 등 화마로 소실된 불교문화유산 복구 성금 1000만 원, BTN불교TV와 BBS불교방송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모금 캠페인에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지혜의 눈

손지우손(損之又損)

덜어내야 할 것은 아집(我執) 21세기 문맹은 수행의 결여

21세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변곡점에 해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논리를 근거로 말하고 있다. 그중 문맹(文盲)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앨빈 토플러는 “문맹자란 읽고 쓰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버린다(unlearning)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다시 배운다(relearning)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버린다’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도덕경> 48장의 내용이다.

“위학일익(爲學日益) 위도일손(爲道日損) 손지우손(損之又損) 이지어무위(以至於無爲)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배움은 하루하루 쌓아 가는 것이

고 도(道)를 실천하는 것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덜어내면 함이 없는 무위의 지경에 이르러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때 무위는 인위와 대립되는 말로 어떤 절대적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구절에서 핵심어는 손지우손(損之又損)이 아닐까 싶다. 무위이무불위는 손지우손이란 실천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경지일 뿐이다. 손지우손이란 말은 불교의 방하착(放下着)을 떠올리게 한다. 덜어내야 할 것은 아집(我執)이고 그 밑바닥에는 탐욕(貪慾)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면 나름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개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다른 사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갈등은 작게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만, 국가 단위로 확장되면 전쟁으로 치닫는다. 이 경우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하나의 원리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강압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각각의 주장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꾀하여 공존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두 원리 사이에 수많은 타협점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불교는 당연히 후자에 속한다.

인류는 문명을 이룩한 이후 20세기 말까지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에 인류가 이룬 발전은 경이로운 수준이었고, 그 동력은 풍요롭게 살려는 인간의 욕망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지나친 자원의 낭비는 거꾸로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욕망의 충족에서 욕망의 절제로 가치관이 변해야만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당연시되었던 가치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몸에 밴 습관 중 하나가 수시로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다. 농촌에 내려와 산 지난 10년 동안은 기후변동이 매우 심각함을 깨닫는 과정이

었다. 올해도 5월 말에 최저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을 넘나드는 저온 현상이 보이고 있다. 작물 생육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21세기에는 더 이상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기준으로 문맹을 따지지 않는다. 문장 속의 내용을 이해하느냐가 문맹(文盲)의 기준이 되었다. 동시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단계까지 가야만 한다. 그것은 욕망의 절제라는 실천적 요구이다. 그동안 우리는 욕망을 무한히 충족하는, 말하자면 탐욕을 쫓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욕망의 절제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문맹은 수행(修行)의 결여를 뜻한다. 토플러의 말을 다시 새겨보자.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라는 것이다. 다시 배운다는 것의 내용에는 수행이 당연히 포함된다.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였던 경봉 스님은 변소(便所)를 해우소(解憂所)라고 이름하였다. 모든 일상을 수행으로 보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교육자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7. 해탈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 완성을 의미한다

해탈이란 고의 근거인 번뇌로부터의 해탈로서 고의 멸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현실적 생애 중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결코 격세적 생존을 가리킬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이상학적 실제와의 일치나 윤리적 선의 완성이나 또는 인생을 방관하는 체념 혹은 허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실지견에 의한 우주 인생의 진리를 철견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중의 악마와의 투쟁에서 절대적 승리를 거두고 인생의 진리를 증오하여 절대 안온의 이상세계를 체현했다. 전기에 의하면 석존은 보리수 하에서 성도후 칠일간 해탈락을 수용했다.

불의 이상인 열반은 결코 단순한 적정이나 휴지가 아니라, 현실에 약동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석존은 원만한 인격자인 동시에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고백하건대 매달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해탈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 완성을 의미한다’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정 대성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하며 가장 처음으로 가슴을 두드린 구절이다. 이 한 말씀으로, 빈 적도 없고 자세히 알지도 못했던 대성사에 대해 호감과 믿음이 생겼다. 『종조법설집』에 실려 있는 귀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적고 그 가치를 알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대성사의 가르침을 언젠가 보다 찬찬히 음미하겠다 마음먹었다.

불교의 이상이라 할 수 있는 해탈에 대하여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우선 좋았다. 단어의 뜻풀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

주어 그동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행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다.

멀게만 느껴졌던 개념이 훑, 하고 다가온 느낌이였다.

해탈이라고 하면 어딘가 초월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욕심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 감히 꿈도 꾸기 어렵다’ 여기며 지레 나오는 면일이라 치부해 왔다.

열반이라는 말은 또 어떤가. 죽음과 동일시되기 일쑤이고 번뇌와 욕망의 바람이 사라진 고요한 경지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주 저 하늘의 뜬 구름처럼 여겨졌다. 해탈, 열반, 깨달음, 정각, 부처... 이상향이기는 한데 그것이 진정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못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이번 생을 생사윤회의 마지막이 되게 하겠다는 싯다르타 태자의 다짐은 결연했다.

생사윤회가 누구에겐들 괴롭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을 불현듯 맞이하고 속절없이 끌려다닌다.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끊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상황이 잦아들면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이고 그럴듯한 당의정에 속곤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강조하셨다.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의 소멸만을 말할 뿐이다.’

부처님께서서는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성찰하여 그 완전한 해결의 길을 찾았다. 고집멸도 사성제, 무아와 무상의 연기법, 탐진치 삼독심과 계정혜 삼학 등이 모두 고통스러운 현실의 이치이자 극복의 길이다.

밖에서 주어진 수많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팔만사천법문으로 설했다.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

니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으니, 수행의 요체는 오직 범부의 집착을 없애는 것일 뿐 따로이 성인의 지혜를 구할 것이 없다고 했다.

구상 시인의 시 ‘꽃자리’를 좋아한다. 특히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는 구절은 그대로 번뇌와 해탈을 이야기한다.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얼마 전 진료를 받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회 초년생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려서부터 엄격한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자라 평가에 무척이나 예민하고 소심하다. 방송일을 하다 보니 매일의 생방송 일정은 그 자체로 사람을 옥죄는 시간 맞춰, 출연자와 진행자와 피디와 청취자에게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 머릿속은 늘 다음 방송 일정과 이야깃거리로 복잡하다.

한 스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니 나중에 치매 걱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니 뇌가 쉴 때가 없어 저절로 치매 예방이 될 줄 알았는데 놀랐다. 노심초사하고 좌고우면하는 습관이 마음 건강에 좋지 않으니 어서 선정 수행을 시작하라 하셨다. 단어 하나도 이렇게 쓸까 저렇게 고칠까 슬하게 고민하며 왔다갔다 하는 어수선한 마음을 잡아줘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했다.

평소 돈이나 명예나 겉치레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지 않은 편이라 꽤 초연하다고 자신했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적으니 흔들림도 적다고 여겼는데 착각이었다. 시계추처럼 쉴 새 없이 방황하는 분별의 마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마다 자신을 퐁퐁 싸매고 있는 집착의 끈은 다를 것이다. 허세와 허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념과 확신에 움짱달짝 못 하는 사람도 있다. 탐욕이 강한 이는 보시바라밀부터 실천해야 하고, 화가 많은 사람은 인욕바라밀에 집중해야 하며, 어리석다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처럼 걱정과 불안이 크다면 굳건한 마음의 심지를 키워야 한다. 선정 수행을 서둘러야 한다.

『초발심자경문』 등에서 많은 수행자가 ‘주인공아!’ 하고 우리를 부른다. 경봉 스님께서서는 깨달음에 다다른 후 이렇게 문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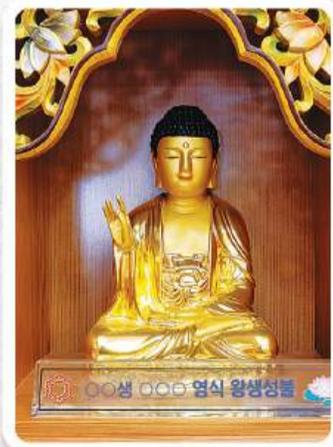
“쫓쫓 무정한 나의 주인공아. 이제야 만나다니 어찌 이리 늦었나. 하하 우습다. 내가 그대 집 속에 있었건만 그대 눈이 밝지 못해 이같이 늦었을 뿐이네.”

부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미끼에 빗대셨고, 갖가지 견해를 그물이라고 비유하셨다. 그릇된 욕망이라고 하는 미끼를 물지 않고 사된 견해라고 하는 그물에서 탈출하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뇌에서 풀려나는 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마음의 굴레가 적어야 삶이 자유로울 것이다. 내 마음에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주인공의 자리를 넓혀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펼치고 싶다. 나의 인격은 오로지 수행으로 완성할 수 있다. 번뇌와 욕심과 집착의 마장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다.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BBS 구성작가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명륜동, 정각사)



왕생법문

수행하는 사람은 하심을 가져야 한다



망령되어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 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바다에
더욱 깊어지느니라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자경문』을 보면 “인을 닦고 인을 얻는 데는 겸손과 사양이 근본이 되고, 벗을 사귀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아(我)·인(人)·중생(衆生)·수자(壽者) 사상(四相)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三惡道)의 바다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밖으로 근사한 모양을 내어 존귀한 듯 꾸며도 안으로 얻은 바 없음은 썩은 배와 같나니,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하느니라. ‘나’니 ‘너’니 하는 상이 무너지는 곳에 무위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下心)하는 사람에게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노래하노

라. 교만한 티끌 속에 지혜는 묻혀만 가고, 아상(我相)·인상(人相) 산 위에서 무명은 자라만 가네. 제 잘난 체 안 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원탄(怨歎)만 가득하리.”

야운 스님은 『자경십문』에서 “망령되어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 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라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 다.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까지 이런 생각에 빠져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재벌인 카네기의 묘비에 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덕이 높고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아 둘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러한 카네기야말로 자기가 거느린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

특히 카네기는 처세술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처세술의 요점은 “친절해라, 겸손해라, 호감 있게 보여라, 상대방의 이름을 잘 외워라”라는 것입니다. 이 처세의 비법은 보살의 십중대계(十重大戒) 중 제7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입

니다. 흔히 사람들은 잘못을 남에게, 잘한 것은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입니다. 실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고 화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면 힘과 평화가 생기고, 서로 잘났다며 대립하면 불안과 파탄만 초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높이지도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야운 스님이 “아·인·중생·수자,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바다에 더욱 깊어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통의 수렁에 깊이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상은 ‘나다’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 제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제일이다.’ 하는 생각,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입니다.

생주이멸(生住異滅)의 흐름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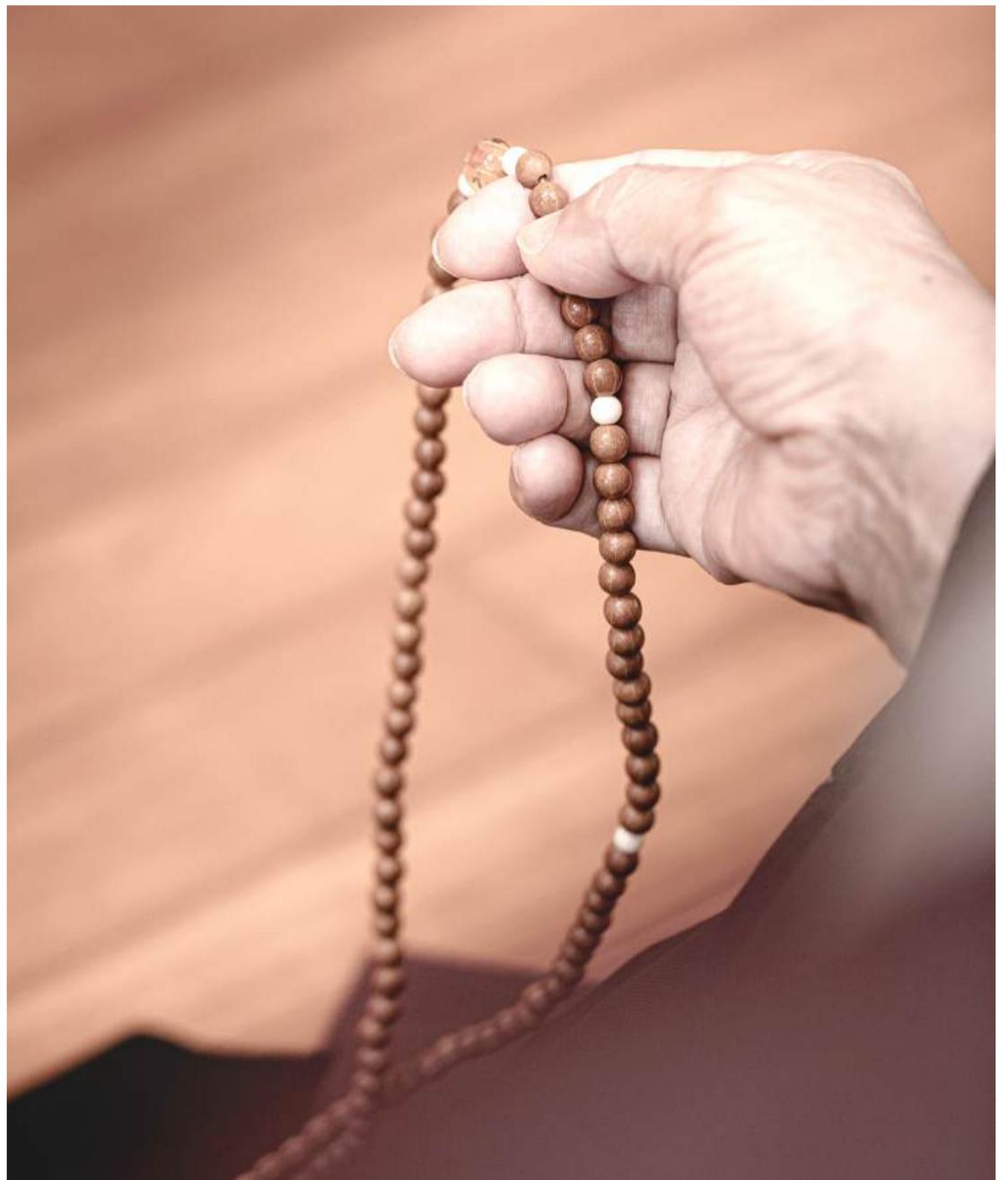
그러나 ‘나’의 몸뚱이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차츰 낡아 부서지듯이, 몸뚱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더라도 별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한 줌의 흙으로 바뀌었고, 그 잘났던 독재자도 마침내는 죽어 염라대왕 앞으로 갔습니다. 물질은 오래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정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변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흐름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는 끊임없이 변하다가 사라지니 무상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으면 고통만 따를 뿐 수행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아상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상이 없어지면 결국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인상도 따로 내세울 것이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는 너’라는 생각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중생상도 수자상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상도 강해지고,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도 강해집니다.

중생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을 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약육강식도 중생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입니다. 곧 미혹한 중생소견으로 짓게 되는 모든 업이 중생상입니다. 수자상은 생사에 대한 끈끈한 모습입니다. 몇 해만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나는 오래 살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며 불로장생을 계획하는 것이 모두 수자상 때문에 비



롯된 것입니다.

이익을 찾아 투쟁하고 생사에 얽매어 사는 삶,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이 원인[因], 인상이 연[緣]이 되어 생존 투쟁의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이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 속을 윤회하여 죽음의 공포와 목숨에 대한 애착 속에서 허덕이는 수자상이라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처럼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은 인(因)·연(緣)·업(業)·과(果)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상을 없앨 때 인상·중생상·수자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남을 위해 봉

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으며, 참된 봉사를 하면 내 마음은 저절로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체 사람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면 대복전, 곧 큰 복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상을 다스리면 사상산이 점점 낮아지고, 사상산이 낮아지면 지옥·아귀·축생의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어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상을 내세워 밖으로 근사한 체하고 존귀한 척한들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썩은 배를 물에 띄우면 꼭 잠겨버리는 것과 같이 삼악도의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뿐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잘 낫고 ‘너’는 별 것 아니라는 상이 무너질 때 조작이 없는 진실한 도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며, 아상을 다스리는 하심을 하면 만 가지 복이 스스로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밀교 정통성으로 재가불교종단의 모범으로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4. 함께 닦는 진언 행자-활기 띤 신행 활동

수명관정수계식 재개

총지종 교도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 할 수 있는 수명관정수계식이 1996년 11월 21일 만보사에서 봉행되었다. 1978년 최초로 110명의 교도가 삼매야계와 관정수계를 받고 1981년 562명의 교도가 삼매야계와 관정수계를 받은 이후 15년 만에 재개되었다. 밀법을 호지하고 신심과 교화 열정이 돈독한 850명의 교도가 불명

과 삼매야계를 받았다.

서원당을 가득 메운 교도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결의가 가득했고, 이를 지켜본 스승들은 수계자의 앞날을 축원했다. 이후 제4회 수명관정수계식은 2004년 11월 16일 서울경인교구 교도 100여 명이 서울 총지사에서, 11월 25일 부산경남교구와 대구경북교구 교도 397명이 부산 정각사

에서 자랑스러운 불명과 삼매야계를 받았다.

중앙신정회 창립

선교부 개설과 동시에 조직된 교도 조직 신정회는 교도 스스로 사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동안 지회와 분회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의 중앙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신정회는 2001년 5월 18일 정식으로 중앙신정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승속의 구분 없이 모든 교도가 종단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처해 온 종단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출범이었다.

중앙신정회는 현재까지도 서울경인지회, 부산경남지회, 충청전라지회, 대구경북지회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조직이 운영 중이다. 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선에서 뒷받침하여 크고 작은 온갖 행사의 굵은일을 도맡아 오고 있다. 교도들은 신정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삼보를 호지하고, 교도 맹약과 회칙을 준수하여 교화 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이뤄내고 있다. 교도 상호 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신뢰와 신행 생활의 깊이를 더하고,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신심으로 종단 발전과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건강한 의견 개진과 견제 및 상호 협조를 통해 승직자와 함께 종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온라인 신행 모임 개설

2007년 경주 국광사와 부산 정각

사는 온라인 신행 모임을 개설했다. 국광사는 '총지종 국광사 학생회'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 80년대 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의 교류 활성화를 꾀했다. 온라인 활동을 매개로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고, 매월 성지순례를 통해 신행 활동의 폭을 확대했다. 정각사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사이월드 미니홈피 '정각사 청년회 07'을 개설했다.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각종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회 활성화를 도모했다. 온라인을 통한 회원 확보로 정기 법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전 공부, 사찰 순례, 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이를 계기로 한동안 침체에 놓여 있었던 청년회를 재창립하여 청년 포교에 적극 나섰다.

남성교도 모임 활성화

그동안 합창단 등 여성교도에 비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던 남성교도들은 각자 모임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친목과 신심을 다지고, 신정회를 비롯한 신행 활동과 사원 운영에 힘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각사 각자 모임 단월회는 2007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자성일 법회 불공에 앞장서서 동참하고 등반, 야유회, 사회봉사 활동으로 모임 활성화를 꾀했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초파일 연등축제에서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각종 불사와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총지사는 2012년 3월 각자 모임을 시작하여 사원의 정기 불공에 적극 동참했다. 매월 월초 불공 회향일에 별도의 모임을 하고 친목과 결속을 다져 사원과 종단의 행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실지사, 벽룡사 등이 각자 모임, 산악회 등을 결성하여 사원 환경과 시설 정비, 사원 행사 및 교도 가정 경조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이웃과 교도를 위한 봉사 활동과 염송 정진에 물러남 없는 용맹정진의 모습을 보였다.

동해중학교 불교활동 '활기'

종립학교 동해중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의 불교 활동도 갈수록 활기를

띠었다. 1995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최한 전국 종립학교 연합 봉축 행사에 참가하여 동해중학교의 위상을 알린 것을 시작으로, 7월 22일 괴산 수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교직원 연수 교육을 하고, 7월 24일 학생 수련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나날이 성장하는 불심을 보여주었다. 학생 수련대회는 매회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매년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1996년 정식으로 불교반 동아리를 창립하여 정기 법회를 갖고 성지순례, 역사유적지 답사, 문화탐방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평소 3개 반 90여 명이 불교반에서 활동하고 특별 활동 시간에는 4개 학급을 배정해야 할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부산 지역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활동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에 매년 2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부산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불교 모임으로 발전했다. 매주 정각사에서 법회를 갖고 학



생들이 제작한 불교 관련 작품과 불교 소장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신정회는 교도 스스로 사원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

●
 신정회 전국단위 중앙조직 2001년 5월 18일 창립

●
 늦은 감 있지만 의미있는 출발

2000년 3월 동해중학교 학부모 모임인 불교어머니회가 창립됐다. 불교어머니회는 월 1회 법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특강 등 다양한 교양강좌와 연 2회 불교성지 및 삼사(三寺) 순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을 펼쳤다. 교직원과 함께하는 정기 삼사 순례를 통해 지역의 현교 사찰과 종단 사원을 참배하는 등 스승과 신정회와의 교류를 확대했다. 2005년 불교어머니회 명칭을 반야회로 변경하고, 평소 60여 명의 회원이 신행 활동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후 2013년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가 창립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불교 모임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전개했다. 2016년 교내 서원당 동해사를 개설하여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심을 기를 수 있는 신행 공간을 제공했다.

“온 우주는 한 생명,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불교계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를 발원하는 불기 2569년 봉축 법요식이 5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총지사 등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종령 지성 예하는 봉축 범어를 통해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삼라만상 두두물물 비로화장세계(森羅萬象 頭頭物物 毘盧華藏世界), 온 우주는 한 생명이고 한 몸,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애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 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봉축사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의 상실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와 보시, 한 마디의 위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곧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길”임을 강조했다.

전국 사원에서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및 훈향정공 후 대중불사로 법요식을 봉행하였으며, 주교가 봉축범어와 봉축사를 대독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법요식 후 교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열어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총지사는 법회 후 2부 행사에서 피아노, 색소폰 연주 등 교도들의 다양한 특기를 선보였으며, 특히 한국전통무용가들의 부채춤과 살풀이 공연으로 동참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산 정각사는 당일 경내에 ‘봉축행사장’을 열고 다도체험, 먹거리 나눔, 만들기 체험 등을 열어 동참 교도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주민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편집=박재원 기자



봉축법회와 문화행사로 부처님오신날 맞이



5



6



7



8

[총지사] 1. 육법공양 모습 2. 신성희 교도의 색소폰 연주 3. 고우리 교도의 부채춤
[지인사] 4. 연등으로 장식된 사원 전경
[정각사] 5. 교도들의 다도시연 6. 아기부처님 관육의식 7. 체험마당 안내판
8. 연등만들기 체험 9. 연등불을 환히 밝힌 정각사 야경



9

혜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③

사대천왕四大天王

총지종은 진호국가 불사의계를 할 때 만다라관 도표에 의거하여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대천왕(四大天王)을 부릅니다.

원래 사천왕은 고대 인도의 호세신(護世神) 또는 방위신(方位神)입니다. 이 사천왕이 불교에 들어오면서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에 사는 제석천의 권속으로 사방사주(四方四洲)를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의무를 갖습니다

사천왕은 사악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침략자로부터 약한 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찰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사찰의 초입(初入)에 사천왕문(四天王門)이 세워졌는데, 모습 또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용맹한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 동방의 지국천왕(持國天王)

지국천왕은 산스크리트로 ‘뜨르타라스트라(Dhrtarastra)’라 하며, 국토와 나라를 지키는 무장입니다. 오른손에 보배 구슬[寶珠], 왼손에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2) 남방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증장천왕은 산스크리트로 ‘비루다카두타(Virudhakaduta)’라 하고, 나라의 영역을 늘리는 무장으로, 즉 수행자의 복덕을 늘리고 장원하게 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양손에 칼을 들고, 발로 아귀를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서방의 광목천왕(廣目天王)

광목천왕은 산스크리트로 ‘비루팍샤(Virupaksa)’라 합니다.

나라를 호위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두루 살피는 무장이고,

불법을 수호하는 데 여러 가지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천의(天衣)를 겹옷으로 걸쳐 입고, 오른손에 삼고저(三鈷杵)의 창을 들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발아래 아귀를 밟고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 북방의 다문천왕(多聞天王)

다문천왕은 산스크리트로 ‘바이스라빠나(Vaisravana)’라 합니다.

나라에 재복(財福)을 있게 하는 무장으로, 불법을 수호하며 재복(財福)을 주고, 항상 부처님의 설법(說法)을 많이 듣고 만복(萬福)의 명성(名聲)을 널리 들리도록 하는 천왕입니다. 오른손에 보배로 된 봉(棒)을 들고, 왼손에 보배 탑을 들고, 갑옷을 입고 관(冠)을 쓰고 있습니다.



1



2



3



4



줄탁동시 啐啄同時

어느덧 싱그러운 6월이다. 눈만 뜨면 천지사방에 꽃 아닌 데가 없고, 꽃보다 더 고운 녹음이 눈부실 정도이니 말이다. 해마다 보는 꽃, 늘 보아오던 녹음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의 역동적 변화 앞에 우리의 가슴이 희망의 떨림으로 부풀어 오른다.

지난 5월은 은혜와 감사의 날이었다. 그중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학생을 울곧게 교육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했다. 이 땅의 스승들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며, 인정 많고 담대하여 때로는 배은망덕(背恩忘德)과 무관심까지도 서운한 내색이 없다.

맹자(孟子)는 군자가 인재를 가르치는 다섯 가지 방법 중 가장 으뜸이 ‘시우지화(時雨之化)’라고 했다. ‘때맞춰 비가 내려야 초목이 쑥쑥 자라듯, 제때 제자가 갈 길을 바로잡아 주어야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이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이러한 ‘운우(雲雨)와 초목(草木)’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고들 한다. 그것은 좋은 스승이 적다는 의미보다는, 반대로 좋은 스승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지 못함을 개탄하는 이야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

‘스승을 경시하는 스승의 날’이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일 것이다. 심지어 어떤 때는 가장 자랑스럽고 축복받아야 할 ‘스승의 날’마저도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아예 휴교한 사례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죄인이 되는 판에 ‘스승의 날’은 해서 무엇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중국 송(宋)나라 때의 불서(佛書) 『벽암록(碧巖錄)』에 ‘줄

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줄(啐)’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쪼는 동작이며, ‘탁(啄)’은 어미 닭이 알 밖에서 도와 깨는 동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同時)’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에서 쪼는 행위[啐]와 어미 닭이 바깥에서 도와주는 행위[啄]가 동시에 일어남을 뜻한다.

‘줄탁동시’는 원래 선불교(禪佛敎)에서 흔히 사용되던 말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제자가 깨우칠 때까지 품고 보살피는 스승은 아직 깨치지 못한 제자의 한계가 깨어질 때까지 줄탁(啐啄) 작업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제자, 그 성장을 더 기뻐하는 스승이 있기에 가능한 상호작용의 결정체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선생님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기는 하지만 제자의 미래와 꿈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알을 깨려고 노력할 때[啐], 때맞춰 어미 닭이 밖에서 알을 쪼듯[啄], 스승과 제자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의 나눔과 베풀, 격려와 배려의 표본(標本)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님을 더욱 존경하고, 이분들의 깊은 사랑과 뜻을 받들며,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남해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

경전을 짊어지고 히말라야산맥 넘어 티베트로...

불법 수호 스님들의 희생과 원력이 오늘날에 고스란히

⑥ 세계 최초, 최대의 대학 '나란다'

넷째 날 오전 영축산, 빔비사라왕의 감옥 터, 죽림정사, 칠엽굴을 순례하고 점심 공양 후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 터로 향하였다.

라즈기르(왕사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태어난 바르가온이라는 마을이 있다. 부처님께서 두 제자가 태어난 바르가온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500명의 상인이 돈을 모아 파바리카라는 망고나무 동산을 기증했다. 부처님께서 3개월간 머무르시며 가르침을 전한 것이 나란다의 시작이라고 전한다.



나란다 대학에 도착해 먼저 사리불 존자의 스투파에 참배하였다. 기원전 250년경 아소카왕은 사리불 존자를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나란다에 사원과 존자의 스투파를 세웠다. 기원후 5세기경 굽타왕조의 왕 쿠마라굽타 1세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나란다 사원을 지었고, 그 후 계속해서 확대, 증축이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나란다 대학은 가로 11km, 세로 5km나 되는 거대한 넓이의 대학촌이 있었다. 인도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나란다 대학의 유적은 54km로 세 개의 도시에 걸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지는 대학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한다. 사리불 존자의 스투파를 참배한 후 당시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의 거처였던 곳을 둘러보았다. 특히 당나라 현장 스님이 쓰던 방도 볼 수 있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쓴 『대당서역기』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재능과 학식을 겸한 1만여 명의 스님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2,000여 명이나 되었고, 매일 100여 개의 강

의가 열렸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나란다 대학이 얼마나 큰 대학이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님이 생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왕오천축국전』을 쓰신 신라의 혜초 스님은 불교를 공부하고자 이역만리 불원천리 나란다 대학에 찾아가셨으나, 정식 학생으로 입학할 수 없고 그곳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돌아가셨다.

나란다 대학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수행자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정식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서 시험을 통해 열명 중 두세 명만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융성했던 나란다 대학은 이슬람의 인도 침공으로 사라졌다. 많은 스님이 희생되었고, 불교경전이 불살라졌다. 불타는 연기가 6개월간 솟아올랐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12세기 말 무슬림 왕조의 박티야르 칼지(Bakhtiyar Khalji) 장군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 나란다 대학을 군사요새로 착각한 박티야르 칼지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고 도



나란다 대학 유적지(위)와 사리불 수투파(아래)

륙해 버렸다.”라고 한다.

그 당시 많은 스님이 경전을 짊어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베트로 향하였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지 못한 스님들은 경전을 산속 동굴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 숨겨두었던 경전이 후대에 발견되어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가진 불교 지식의 원천은 모두 나란다 대학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이슬람의 침공으로 수많은 스님이 희생되고, 불교경전이 불탔으며, 인도에서 불교가 쇠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도에 있던 수많은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티베트와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불교 경전과 불법을 수호하고자 한 스님들의 희생과 원력이 현재까지 이어져, 동굴 속에서 경전이 발견되고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아닐지 생각한다.

부산 법성사 주교 남혜 정사



밀교로써 평화의 길을 제시했던 마지막 등불 돌제최빠

한국에서 천수관음과 육자진언 염송의 발원을 살피려면 동아시아 밀교를 주도했던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 시대 밀교의 판도가 티베트·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사실은 천수관음 신앙과 육자진언의 유행으로 확인된다. 육자진언은 변화관음 가운데 사비관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비관음의 조상은 보로부들 뿐만 아니라 멀리 태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8950>, 8세기 태국) 자세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테라바다 지역에서 육자진언을 상징하는 밀교의 소상이 발견된 것은 육자진언이 유행한 판도를 넓혀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사비관음의 경우 네 팔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상징한다. 또한 네 손에 들고 있는 지물(持物) 가운데 합장의 무드라에서 양손으로 쥐고 있는 것은 여의보주(如意寶珠)로서, 관세음보살의 반야와 방편의 불이성을 상징한다. 오른손의 수정염주는 염주를 끊임없이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염원이 영원함을 상징하고, 왼손의 연화는 관세음보살의 중생 구제 신변이 무궁무진하면서도 연꽃처럼 무구함을 상징한다.

사비관음의 유행은 최초 『반야경』에서 기원한다. 경전의 핵심 사상은 현상계와 공성, 즉 색과 공의 불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삼매야형으로서 방편은 여의보주인 마니, 공성은 연꽃인 빠드마를 소연으로 공과 색, 혹은 반야 방편의 불이성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뒤이어 밀교가 유행하면서 이를 사비관음으로 도상화하고, 뒤이어 세밀한 도상을 그린 탕카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출처 Wisdom of Compassion: Trī Tuḥ



사비관음



돌제최빠 스님

진언과 다라니
가려뽑아 결집한
『밀승법해』

동아시아 밀교문화
통합 역사 담은
상징적 책

Tu Bi))

수많은 과제를 뒤로하고, 근현대의 현실로 뛰어넘으면 동아시아는 일제에 의한 조선의 멸망과 함께 청조로 이끌던 만주, 나아가 티베트, 몽골이 멸절한 불행한 세상이 된다. 청조의 멸망 이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의 대전쟁을 벌여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처절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밀교는 다양한 의식과 의례를 통해 붓다의 자비로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로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동아시아의 황제와 왕은 대부분 불교 신자였다. 이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전쟁과 살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국가의례의 선행 가운데 권력자들이 들었던 것은 불보살의 불살생과 자비의 범음이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혼란기에 밀교 의식을 거행하고 세상의 전쟁을 막으려 했던 마지막 아사리를 들라고 하면, 아직 조사되지 않은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그중 돌제최빠(1874~) 스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은 청조 동치 13년(1874년) 티베트에서 태어나 일찍 출가하여 라싸의 데뽕 사원에서 12년간 현교와 밀교를 공부하고, 최고 승려 학위인 계세 학위를 받았다. 40세가 되던 1911년 스님은 몽골과 중국을 오가면서 많은 불사와 관정도량을 폈다.

당시 중국인이었던 석대용은 1921년 일본의 고야산에서 동밀을 공부하고 아사리가 되어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돌제최빠 스님을 만나 자신의 미진한 공부를 완성하였다.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발원한 티베트 밀교와 동아시아 밀교의 유일한 계승자인 고야산의 당밀이 만나는 희귀한 법연이 이때 이루어졌다.

돌제최빠 스님은 당시 중국에 억류되었던 판첸라마 10세를 만났고, 판첸라마의 사원에 머물면서 많은

밀교 경계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때 많은 중국인이 판첸라마와 돌제최빠 스님에게 귀의와 공양을 올렸는데, 그 자원은 당시 중화민국이었던 중국을 비롯해 티베트, 몽골 지역에 불사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돌제최빠 스님은 주로 동부 티베트인 사천 지역에 머물며 법을 폈으며, 밀교의 발원지인 인도를 순례하기도 하였다. 1933년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라싸에서 입적하자 티베트로 돌아와 조문하였고, 이후 데뽕사원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나, 뒤이은 국공내전과 마오쩌둥에 의한 공산화, 티베트의 침탈이라는 고난의 역사는 그의 말년 기록조차도 알 길이 없게 만들었다.

돌제최빠 아사리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남긴 『밀승법해(密乘法海)』라는 책 때문이다. 이 책은 많은 밀교의 진언과 다라니 가운데 현실적으로 긴요한 것을 가려 뽑아 결집한 것인데, 진언을 실담자로 표기하고 티베트·몽골·한문을 병기한 것이어서, 동아시아 밀교 문화 통합의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후기 밀교 진언을 포함하지만, 조선 시대에 발간된 『진언집』과 기본적 구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육자진언의 유통과 근대 밀교 판도를 오간 것은 거리가 먼 주제 같지만, 육자진언이 가진 밀교 문화의 판도와 동아시아 시대의 마지막에 동아시아에 밀교를 흥포하려 했던 돌제최빠 스님이 교차하는 것은 육자진언의 유통과 과제가 시대적으로 넓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언젠가 인도 밀교와 동아시아 밀교 문화의 교차 연구도 필요한 일이어서 당분간 『밀승법해』와 『진언집』에 나타난 진언을 소개하고 해석하는 일에 지면을 할애할까 생각한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苑淨)의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2. 역사관과 준제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2. 자주정신과 의계 전승
- V. 결어

2. 자주정신과 의계 전승

원정의 법설 가운데 ‘불교의 생활화’는 이전 포교가 선행되어야 하며, 포교는 종단이 지닌 다양한 불교문화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정이 연구하고 전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심요가 새로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정은 육자대명왕진언과 준제진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역사와 인문학, 의례의 발전은 항상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을 보여왔다. 인도불교의 초기 교단이 근본분열로 일컬어지는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했고, 양 부파는 지말분열로 많은 학파가 생김으로써 부파불교 시대라는 새로운 인도 교단의 전성기를 마련하였다.

부파불교 시대에 아비달마(阿毘達磨)가 연구됨으로써 대승불교시대 대부분의 사상이 발생하였고, 불전문학을 통해 『화엄경』·『법화경』 출현의 초석도 마련되었다. 밀교에 중요한 불탑사상·법신사상과 중요한 의례의 근간이 이 시대에 마련되었다. 초기 교단에 존재했던 전통과 개발의 양 축은 결국 종단의 시대별 환경이었던 인간의 정신과 문화의 변화 때문이다. 불교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불교 교단의 변화를 재촉한 사례는 불상이 조성되지 않다가 굽타시대에 최초로 조성되던 사연과도 같다. 허구를 빌려 불전문학이 출현한 것도 동일하다. 밀교에 다양한 본존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번뇌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본존과 염송법, 다라니가 출현한다. 그 본의는 중생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약처방이 수없이 존

재하는 것이다. 경직된 의례를 보존하는 것은 빨간약으로 배앓이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

조선 시대 존재했던 범패는 전쟁이나 대기근, 전염병으로 죽은 억울한 생령을 위정자와 백성이 모인 도량에서 불보살을 청해 공양하고, 영혼을 위무하고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함으로써 사회불안과 원한을 일소하고, 불심으로 단결하고 하나가 되었던 중요한 도량이였다. 조선 후기까지 범패 도량이 선행되고 지금까지 수록재나 영산재가 존속한다는 것은 한국 불교 전통문화로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보존된 것보다 소실된 것이 훨씬 많다.

밀교의 완성은 의계를 통해 도량을 개설하고, 관정과 전법, 호마 등의 도량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원정이, “만다라라고 하는 무대는 석존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특정한 좁은 장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종자를 가지고 더욱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세계이다.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 감각을 마음에 머물게 한 것이 자성만다라다.”라고 한 것은 마음의 만다라를 가리키지만, 종단 차원에서 밀교 도량은 사회의 불안과 고통을 조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위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소제목에서 ‘자주’라 말한 것은 불교사를 통해 수없이 차려진 밀교의계의 상처를 재현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자주’란 말의 철학적 해석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본 밀교종단으로부터 소실된 동아시아 밀교의 의례를 역수입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일본 밀교종단은 그들 스스로 신라로부터 유입된 의계 소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 신라 아사리들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밀교종단 고유의 불교문화이다. 여기에는 많은 수정작업도 있을 것이고 후대에 가필된 흔적을 지우는 일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 갈래는 티베트불교에 내재해 있는 인도 나란다사 전통의 도량이다. 특히 대일여래 도량이나 『금강정경』계의 도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지종의 경우 『이취경』 도량

은 더욱 중요하다. 『이취경』의 관련 문헌을 번역하면 『이취바라밀경』이 보다 고도화된 의계로 발전하고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주는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수용해서 잘 사용하고 우리 것으로 순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 사회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불교수행 대신 명상이란 말을 선호하고, 선수행도 명상이란 말을 적용한다. 심지어 천주교, 기독교 교단도 명상한다고 한다. 이것은 불교의 실천 수행이 기호자의 의식을 이끌지 못하고 상업적인 명상단체의 성공에 끌려가는 것이다. 수많은 불교수행의 소재가 밀교의계와 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단의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밀교의 소재에 대해 그 수용 가능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 결어

밀교학자로서 한국밀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원래 논문에서는 원정의 행장과 사상을 나누어 별도의 주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행장과 사상의 절충인 역사관을 주제로 삼았다. 논문에서 다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원정의 행장을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정의 총지종 창종이 보이는 밀교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원정은 총지종의 증명에 대해 조선초 총지종(總持宗)과 독음을 같이 하여 한국밀교의 전승자로서 종단의 입지를 세웠다. 둘째, 원정은 소의경전으로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58(이하 『이취육도경』)을 선정해 인도불교사에 보이듯 현교의 수학(修學) 후 밀교를 수행하는 인도불교 수행자체의 근간을 두어 인도 대승불교의 정통으로서 밀교의 시원을 분명히 했다. 셋째, 원정은 준제(准提)진언을 수용하여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에서 나아가 전적과 사상, 수행체계를 고루 섭렵해 제시하였다. 불공삼장(不空三藏)의 『준제경(准提

經)』과 도진의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輯)』을 주요시하였다.

넷째, 원정의 준제진언 수용과 참독은 총지종에 대해 한국불교 전승자로서 밀교종단의 입지를 세운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정의 법설 가운데 한국불교의 화엄, 천태, 정토, 선 등의 다양한 소재들을 엮을 수 있으며, 특히 준제진언을 통해 조선시대 선사들이 참선과 준제진언을 함께 참양한 선밀쌍수(禪密雙修)의 가풍을 수용해 선과 밀교의 원융한 면모를 수용하였다. 다섯째, 원정은 불교에 대해 인물보다 불법이 지닌 보편진리를 우선시했다. 그것은 석존의 입멸 후 인도 교단이 교조주의나 율법주의, 성전주의를 벗어나 법(法)의 교단으로 나아가게 할 석존의 유시와도 일치하며, 법신 비로자나여래가 보이는 보편원리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정의 행장과 사상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부를 제기한 것에 그친 것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개진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총지종의 전적과 기록을 살피고, 진각종의 자료를 참고하였지만, 시간상 충분한 자료의 섭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얻은 개인적 교훈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밀교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다.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나란다사에 성행했던 불교 연구이다. 나란다사 연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교와 밀교의 역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정 대성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생전 당시 연구 자원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불교사 전체를 관통하는 해안과 인도와 동아시아, 한국불교에 대해 현밀을 넘나드는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대성사에 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회당과 대성사 양 성인이 합심해 인류의 스승으로서 펼치려 했던 꿈과 원력은 향후 후손의 과제가 될 것이다. <끝>

정성준 박사



“중생을 향한 부처의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한평생이 얼마나 되기에 도를 닦지는 않고 게으름만 부릴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에 도를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라. 모름지기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나의 근본 원은 그대 혼자만 생사의 바다에서 구해내는 것이니라.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대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태란습화 네 가지로 생

명을 받을 때마다 부모를 의지하여 출몰하였으니, 지극히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되었던 이만하여도 한량이 없다.

이렇게 관찰한다면, 육도 중생 중 그 많은 생애에서 부모가 되지 않았던 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이 악취에 떨어져 밤낮없이 고통을 받고 있나니, 만약 그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가슴이 찢어지듯 애달프고 슬프도다.

천번 만번 바라노니, 그대는 빨리 큰 지혜를 밝혀 신통력과 자재한 방편의 힘을 갖추고, 속히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돛대가 되어 탐욕의 저 언덕에서 헤매는 미혹한 중생을 널리 제도할지어다.”

이 글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담은 법문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한 기회와 그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음미하면, 인간 존재의 귀함과 수행의 필요성, 그리고 자비심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1. 사람으로 태어남의 어려움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이는 부처님이 자주 비유로 드신 이야기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드문 일 인지를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 가운데 사람 몸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기회이며, 이는 수행을 위한 절호의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2.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도를 닦지는 않고 게으름만 부릴 것인가?” 귀한 인간 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욕망에 휘둘리며 사는 삶을 경계합니다.

3. 불법을 만나는 것의 귀함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불교의 진리를 접하는 것 또한 드문 인연이며, 이 인연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4.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수행은 단지 개인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 모

두를 구제하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루어져 함을 강조합니다.

5. 모든 중생은 과거 생의 부모

“육도 중생 중 그 많은 생애에서 부모가 되지 않았던 이가 없을 것이다.” 윤회하는 생애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과거 어느 생에서 부모, 자식, 형제였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때문에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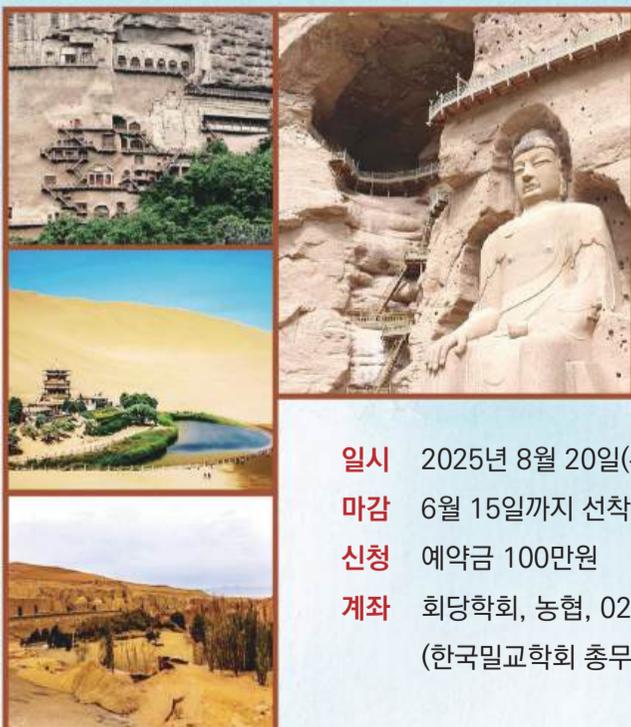
6. 큰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 인도

“속히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돛대가 되어 ... 미혹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할 지어다.”

수행자는 고통받는 중생의 길잡이

이자 구제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혜와 신통력, 방편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이 법문은 단순한 훈계나 경고가 아니라, 뜨거운 자비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애달프고 슬프도다”는 표현은, 중생을 향한 부처의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글을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이며 복입니다. 이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갈고닦으며,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에 응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5 한국밀교학회 실�크로드 하서주랑 불적답사

190여개의 석굴이 조성된 맥적산 석굴, 절벽에 새겨진 병령사 석굴, 구마라집스님의 사리를 모신 구마라집사, 중국 최대 와불상이 있는 장액의 대불사, 돈황의 막고굴, 베제크리크의 천불동, 바단지린의 사막의 일출과 일몰, 바단호와 마타영, 쌍해자 등의 호수, 무지개산이라 불리는 칠채산, 서역으로 가는 제일의 관문인 가육관 성루, 사막의 오아시스 월아천, 모래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명사산, 실�크로드의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했던 교하고성, 고창국의 고창고성, 우루무치의 천산천지, 중국 5악 중 하나인 화산 등.

일시 2025년 8월 20일(수)부터 8월 30일(토)까지(10박 11일, 369만원)

마감 6월 15일까지 선착순 20명

신청 예약금 100만원

계좌 회당학회, 농협, 024-17-001883 예약금 입금시 본인의 불명과 성명을 기재
(한국밀교학회 총무이사 명운(김치운) 전화: 010-5322-2746)

한국밀교학회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28
화엄경 제1품 세주묘엄품



‘화엄경’의 무수한 신은 자연의 또다른 이름

『화엄경』은 각기 40권, 60권, 80권으로 구성된 3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80권 『화엄경』에 관한 이야기이다.

80권 『화엄경』은 총 7곳에서 9번에 걸쳐 경이 설해지는데, 경전은 39품으로 나뉘어 있고 제1품이 「세주묘엄품」이다. 「세주묘엄품」에서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비로자나인 법신으로서 미묘한 덕을 나타내신다. 이어 열 세계의 티끌 수같이 많은 보살과 몸 많은 신부터 대자재천왕에 이르기까지 39종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들은 걸림 없이 원만한 공덕으로 『화엄경』 법문을 들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부처님의 덕을 제각기 찬탄하였다. 이것으로써 대법을 연설할 도량과 법을 말씀할 교주와 법문을 들을 대중이 함께 원만하여서, 『화엄경』의 무량한 법문을 일으킬 준비가 온전히 갖추어진다.

이때 모인 신 중에는 무엇을 맡은 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량 맡은 신, 성(城) 맡은 신, 땅 맡은 신, 숲 맡은 신, 약 맡은 신, 농사 맡은 신, 강 맡은 신, 바다 맡은 신, 불 맡은 신, 바람 맡은 신, 방위 맡은 신, 밤 맡은 신, 낮 맡은 신과 같은 신이다.

옛사람은 이런 신이 실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눈에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는 없는 것으로 간주 되었으

며, 이것을 믿으면 미신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새로운 믿음은 자연에서 신성을 없애고 자연을 물질로 치부하며 생명력을 빼앗았다. 그래서 단지 물질인 자연, 생명이 아닌 기계인 자연은 이성을 가진 뛰어난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이용되는 대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이원론과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중 우월주의는 자연에 대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 우월주의, 기후위기·생태계 파괴 초래

땅을 채굴하고, 나무를 베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강을 막아 댐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 자원을 개발하고,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을 돌려 대량생산 대량소비하는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화엄경』에서 자연은 각기 맡은 신이 있음을 알려 준다. 그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연기의 세계관을 통해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라고 할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나 아닌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존재하므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으며,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물은 서로 의지...모두 소중한 존재

『화엄경』에 등장하는 이 다양한 신들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이를 알아보고 모인 대중이다. 그들은 “모두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에, 큰 소원을 세우고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여 공양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 소원대로 수행함이 원만하여서 이미 저 언덕에 이르렀다. 끝없이 깨끗한 복을 쌓았고, 모든 삼매로 행할 경계를 모두 통달하였고,神通한 힘을 얻어 여래를 따라 머물렀다. 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고, 여럿이 모인 곳에 있을 적에 위엄과 광명이 우뚝하며, 중생에 따라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였다.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있는 곳마다 따라가서 화생하며 온갖 여래의 머무는 곳에서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고 있었다.”

또 한량없는 농사 맡은 신[主稼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부드럽고 맛 좋은[柔軟勝味] 농사 맡은 신, 때 만난 꽃 조촐한 빛[時華淨光] 농사 맡은 신, 빛과 기운 건장한[色力勇健] 농사 맡은 신, 정기 증장하는[增長精氣] 농사 맡은 신, 뿌리 열매 널리 내

자연은 소유할 수 없어 감사하며 겸손해야

는[普生根果] 농사 맡은 신, 묘한 장엄 상투 둘러[妙嚴環髻] 농사 맡은 신, 윤택하고 조촐한 꽃[潤澤淨華] 농사 맡은 신, 묘한 향기 이룩한[成就妙香] 농사 맡은 신, 보는 이가 사랑하는[見者愛樂] 농사 맡은 신, 때 없고 깨끗한 빛[離垢淨光] 농사 맡은 신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수가 한량없는 데, 모두 큰 기쁨을 성취한 이들이었다.

또 한량없는 강 맡은 신[主河神]이 있었으니, 이른바 빠른 물결 널리 내는[普發迅流] 강 맡은 신, 샘과 냇물 깨끗이 하는[普潔泉澗] 강 맡은 신, 티끌 없고 깨끗한 눈[離塵淨眼] 강 맡은 신, 시방에 두루 외치는[十方遍吼] 강 맡은 신, 중생을 구호하는[救護衆生] 강 맡은 신, 덥지 않고 깨끗한 빛[無熱淨光] 강 맡은 신, 기쁜 마음 널리 내는[普生歡喜] 강 맡은 신, 넓은 공덕 좋은 당기[廣德勝幢] 강 맡은 신, 여러 세상 환히 비추는 강[光照普世] 맡은 신, 바다 공덕 밝은 빛[海德光明] 강 맡은 신들이었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한량없는 수가 있었는데, 모두 부지런히 마음 써서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껴야

농사는 농부의 땀방울만으로 되지 않는다. 태양과 달과 비와 바람과 구름 등 모든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결실을 맺는다. 농사에도 이렇게 많은 신이 있고, 그들은 큰 기쁨을 성취한 이들이었다. 또 수많은 강에도 각각의 신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부지런히 마음 써서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자연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그 어떤 물건도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리는 결코 자연을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가 옳은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연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본을 투자했고, 내가 생산했고, 내가 샀으니 내가 내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유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일러 전도몽상이라고 하셨다.

이제 이러한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연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려고 노력해 보았으면 한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활짝’ 열리다

5월 28일 ‘동양금박 철거 기념식’ 봉행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일주문 절반을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마침내 일주문이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확 트인 일주문 뒤로 경내와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한눈에 들어 오면서 40년 만에 총본산 제일문(第一門)의 본래 면목을 되찾게 됐다.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지난 5월 28일 동양금박 철거 기념식을 봉행하고, 총본산 제일문의 본래 면모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는 조계사 숙원 사업 중 가장 큰 난제로 꼽히던

동양금박 철거를 위해 수년간 헌신해 온 이들을 위한 공로를 기리고,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부처님 도량에 들어서시는 첫 번째 문이자 조계사의 얼굴이기도 한 일주문이 오늘로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총본산의 본래 면모를 되찾고 종단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근본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절 기념

5월 10일 전국 심인당에서 불사 봉행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제123주년 탄생절을 기리는 기념불사가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또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총지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회당 대종사 탄생의 뜻을 기렸다.

이날 법회는 육법공양에 이어 △헌화 △강도발원 △개회예참(오대서원 및 유가삼밀) △종조 범어 봉독 △봉축사 △봉축의 노래(서울교구 만다라합창단) △반야심경 봉독 △진각종가 제창 △폐회예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봉축사를 통해 “회당 대종사님께서 오신 거룩한 날을 맞는 오늘의 참 의미는 맡겨진 불사에 더욱 용맹정진하는 일이다.”며 “섬김, 소통, 화합으로 감동교화를 위해 모두가 다시 발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	명	진	언		확		망	향	제
목		달		현	충	일		우	
천		래		상			사	회	자
왕	벗	꽃		수	신	제	가		구
	나		유	배		사			책
	무	속				상	영	관	
외		물	질					상	호
유	연	성		돌	덩	어	리		국
내				고		리			불
강	강	수	월	래		광		외	교

34면
가로세로 정답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상월원각 대조사 51주기 열반대재

5월 24일 천태종 본산 구인사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열반 51주기를 맞아 대조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상월원각 대조사 51주기 열반대재’를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했다. 종정 도용 스님의 헌향·헌다·헌화, 원로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위원,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천태종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스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은 헌향·헌화로 상월원각 대조사의 열반 51주기를 추모했다.

열반대재 사회는 교무부장 도용 스님이 맡았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창기원 △헌향·헌다·헌

화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법어 △추모사 △봉행사 △추도사 △추모가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요식 후 오후 1시 30분에는 적멸궁에서 적멸공재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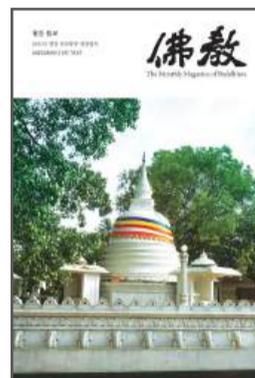
창간 100주년 <불교> 6월호 발간

전통의 계승과 현대 불교의 사명 등

1924년 창간되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월간 잡지 <불교>가 6월호(통권 7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권두언에서는 수봉 상진 스님이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이끈다’는 주제로 전통의 계승과 현대 불교의 사명을 강조했다. 마성 스님의 ‘현자의 사색’에서는 ‘울장과의 만남’이라는 글을 통해 불교 윤리의 본질을 되짚었다. 이성운 교수의 ‘영산작법’에서는 불교 의례와 문화에 관해 탐구했으며, 불교민속연구소장 구미래 박사는 여름철 스님들의 농사 울력을 통해 수행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행 분야에서 정준영 교수는 ‘내



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라는 글을 통해 마음공부의 시작과 실천을 제시했으며, 옥당 일휴 스님의

‘선해 『대승찬』’과 이필원 교수의 교학 해설 또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또 남권희 교수는 대장경 조성의 역사적 의미를 조망했고, 북미 유럽교구의 법산 스님은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3가지 수행 여정을 들려준다.

종교 과목 수업에 불교 교과서 길 열리다

‘삶과 종교’, 세종교육청 본심사 예비 합격

불교계가 개발한 첫 종교 교과서가 탄생해 2026학년도부터 교육 현장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 28일 고등학교 종교 과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계종이 개발하고 승인

을 신청한 ‘삶과 종교’ 교과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예비 합격 판정을 내렸다. ‘삶과 종교’는 불교계에서 개발한 첫 종교 교과서로, 수정·보완 후 8월 말 최종 심의를 거치면 내년 1학기부터 교육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다.

이에 힘을 얻은 동국대출판문화원은 출간 작업에 박차를 가해, 2월 13일 세종시특별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했고, 5월 28일 예비 합격의 결과를 받았다.

불교계에서는 불교계 개발 종교과목 교과서가 없어 종립학교에서조차 기독교계에서 개발한 종교 교과서로 수업해야 할 처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칭찬합시다 ①

용맹정진의 결실로서 황금들판을 얻다

안강읍 5일 장 자비나눔의 큰 손 - 건화사 신정희 윤복자 회장



건화사 윤복자 회장이 안강읍 5일장마다 교화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5월은 참으로 좋مان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축제의 날!

사원 안팎으로 연등을 달아서 아기자기 오색 등불을 수놓아 밝히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 들어 바라보며 웃음 짓고, 사직도 찍으니 기쁨에 넘쳐 가슴이 출렁입니다. 빛바랜 연등을 교체하고 불 꺼진 꼬마전구를 일일이 갈아 끼우며 수고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읍 5일 장날에는 건화사 사원 앞에 예쁜 현수막 두 개를 걸고, 테이블과 의자도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지신문> 과 <위드드라마>, 커피, 수박, 차 등을 나누는 자비의 손길이 있습

니다. 서로 눈을 맞추어 주는 이, 그냥 지나가는 이, 모두 불러 모아서 대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밀며 잡아주는 두 손, 불교총지종 건화사 신정희 회장 윤복자 보살입니다.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을 찬미하며 열정과 봉사로 사원의 교화 발전을 항상 염원하며 불공합니다.

윤복자 보살은 일찍이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 자리 잡고 있던 진각종 기북심인당에 인연이 닿아서 할머니, 어머니, 자매가 대를 이어 함께 밀교진연수행을 하였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 총지종을 창종하실 때 뜻을 함께 따르며 우리 종단의 일원이 된 지가 어언 50여년. 역사적인 순간마다 자리를 함께하며 변함없는 수행정진으로 육바라밀을 기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불교 속의 생활,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며 처처불공과 시시불공으로 염주를 놓치지 않고 옴마니반메흠 진언 염송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고행정진으로 업장을 소멸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 무상과 선정으로 위안을 얻었을 때의 무한

한 기쁨과 환희심이 피어오름은 우리 총지종 보살님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느끼셨을 테지요.

윤복자 회장님을 글로써 소개하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원의 공양과 청소 봉사는 물론이고 문화강좌를 시도하여 다도반을 모집하고, 민화그리기반으로 젊은이들을 모아보려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신정희 대구 경북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교도의 화합단결과 교화의 활성화로 사원 발전과 종단의 번창을 염원하며 늘 불공합니다. 열정과 노력의 넓은 품으로 아우르는 거인이라 불립니다.

우리 윤복자 회장님은 또한 모든 어려움을 정진으로 극복하여 해탈성취한 우리 종단 보살들과 마찬가지로 용맹정진과 실천의 결실로서 가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여 황금들판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복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이 되고, 만이 되고, 수억만 개가 되어가는 과정을 몸소 겪으시면서 얻은 해탈성취는 진언염송과 정진의 결과라고 확신하며, 총지종의 모든 교도님께 증명하여 드립니다. 성도합시다.

건화사 지종영 교도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은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백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편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5,000	₩ 40,000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지장 스님의 향유 _24
마음 변화의 과학
_ 지장 스님



마음챙김 메커니즘 _26
명상과 과학 ②
_ 임진수



문화유산해설 _29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
_ 편집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트랙 _31
이슈 우화 속 배려의 미학
_ 편집실



살다보면 _32
유행가의 위로
_ 이옥경



내가 사랑한 동시 _38
정지용의 '해바라기씨'
_ 신현득

경전에서 찾은 지혜

버리고 애착하지 않는다

얼굴이 아름답고 값진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의 주인이 기뻐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공덕천(功德天)입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찾아가는 곳마다 그 집에 온갖 보물을 생기게 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여인을 맞아 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

조금 후에 또 한 여인이 문 앞에서 있었다. 그 여인은 일그러진 얼굴에 때가 묻었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주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흑암천(黑暗天)이라 합니다.”

“무슨 일로 왔소?”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집의 재산을 없애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칼을 들고나 오면서 외쳤다.

“씩 물러가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주인이 덤벼들자, 이때 그 여인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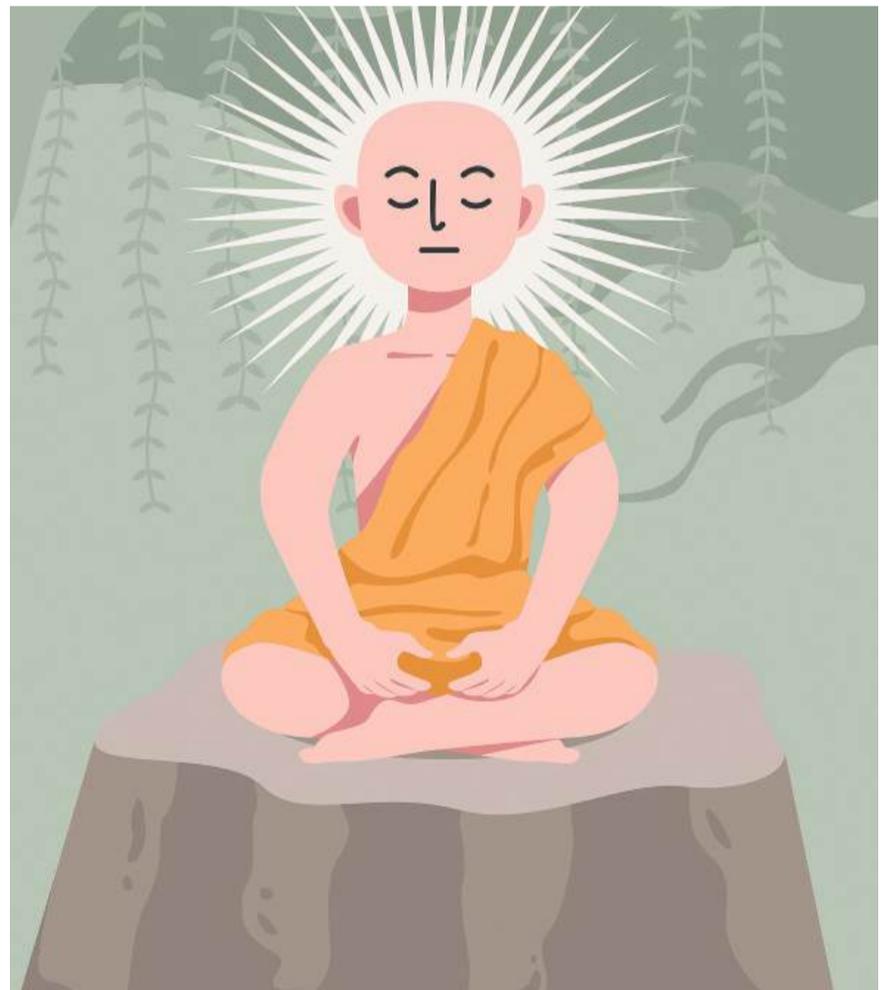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소. 조금 전에 당신 집에 찾아온 이는 내 언니요. 나는 항상 언니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결국 내 언니도 따라 나가게 될 것이요.”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공덕천에게 물었다.

“밖에 어떤 여인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라 하는데 사실입니까?”

공덕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내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동생과 같이 다녔고, 한 번도 서로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은 나



쁜 짓을 하며, 내가 이로운 일을 하면 동생은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려고든 동생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은 두 여인을 모두 쫓아버렸다. 두 여인이 나란히 사라지는 것을 보자 주인은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윽고 두 여인은 어느 가난한 집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 집주인은

두 여인을 보고 반기면서 맞아들였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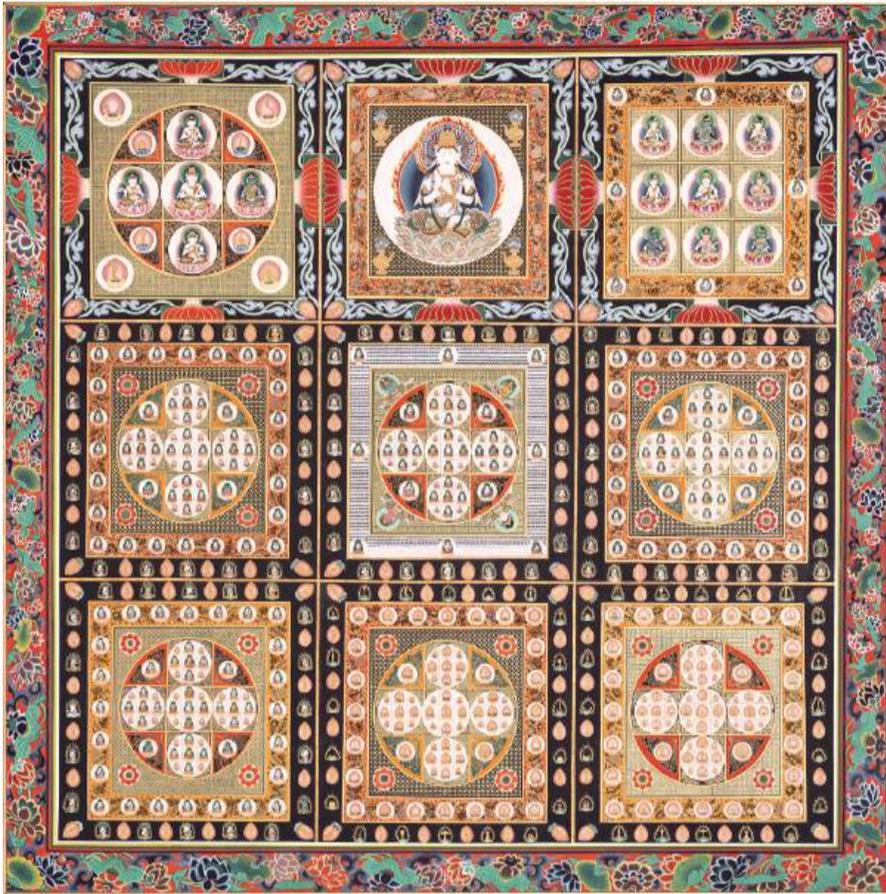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병이 들면 죽게 되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다 같이 집착하지만, 보살은 함께 버리고 애착하지 않는다.

『열반경(涅槃經)』

우리는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는가 ①

“보시를 베풀고 자비를 행하며, 제가자로서의 계율을 지키고 도덕을 준수”



금강계만다라



태장계만다라

《삼십칠조도품》은 너무 전문적으로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가자 위주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자도 여건이 되면 출가자와 같은 수행을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오는 번뇌가 출가자보다 많으므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밀교에서는 재가자도 손쉽게 이런 어려운 여건을 단숨에 뛰어넘는 수행법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평범한 일반 신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신자에게 설해진 수행법은 시론(施論), 계론(戒論), 생천론(生天論)의 삼론(三論)에 따라 보시를 베풀고 자비행을 행하며, 제가자로서의 계율을 지키고 도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불교도로서의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이

확립되고,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재가자의 수행법으로서, 특히 사불괴정(四不壞淨)을 들고 있습니다.

‘불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불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와 성계(聖戒)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증상심(四增上心)이라고도 합니다.

제가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신도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깨달은 분이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는 승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신행 생활이 시작됩니다.

계율을 말씀드릴 때 언급한 것이지

만, 재가신자가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런 다음 수계식을 통하여 계를 받고, 재가자의 오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불괴정을 얻게 되면, 즉 불·법·승 삼보와 성스러운 계에 대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 투철한 것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물러남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성제의 진리를 확립하여 견도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불괴정을 얻게 되면 견도를 얻어 사향팔배의 최하위의 성자인 사다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재가불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이것은 언젠가 부처님께서 카필라성 근처의 니구울 동산이라는 데에 머무르실 때 석가족의 마하남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우바새란 어떤 것이냐고 여쭙었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우바새라고 합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집에서 청정하게 수행하고 청정하게 살면서 남자의 품모를 갖추고, ‘나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가 제자들에게 귀의하여 우바새가 되겠으니,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를 일러 우바새라고 한다.”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 의해서 재가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괴정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우바새가 믿음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합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근본으로 하되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출가수행자·사제·천자·마(魔)·범(梵)과 그 밖의 세상 사람이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일러 우바새가 믿음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계를 완전히 갖춘 것을 우바새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계의 내용으로서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를 행하지 않는 오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바새가 가르침을 듣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우바새가 가르침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 합니까?”

“우바새가 가르침을 완전히 갖춘 것이란 들은 것을 받아 지니며, 들은 것을 모으는 것이다. 즉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이치에 맞고 맛도 좋으며, 순수하고 청정하며 맑은 청정행을 갖춘 것이니, 이를 다 받아 지니는 것을 일

러 우바새가 가르침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그야말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도 좋고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기적을 바라거나 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비약적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을 얻는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기적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와 노력을 가르치는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미신적이라고 하며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집실

담마빠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

방일한 마음을 스스로 금하여 그것을 물리친 자 현자라 하네
 그는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라 근심도 벗어놓고 안락을 얻어
 어리석은 무리를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서 아래를 보듯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를 알고,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즐겁습니다. 근심하더라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이웃, 불행한 이웃을 걱정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데서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이러한 삶은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지장스님의 향유 | 마음 변화의 과학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겸손은 더욱 공부하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저술한 <마음 변화의 과학>을 읽다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가드너 교수가 강연하고 있을 때 12살 꼬마가 질문합니다. 마음은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정치인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가요? 마음의 변화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은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심리치료사, 종교인, 정치인, 영업사원, 동기부여 강사, 사회활동가, 예술가, 작가 등 사회에는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나 애인, 가족 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시도

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마음은 쉽게 바뀝니다. 어떤 계기로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혹은 서서히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바뀌는 것과 업(業)이 바뀌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 혹은 업력(業力)은 아주 뿌리 깊고 강력한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아주 굳건한 습관과 기억 체계입니다.

반면에 생각, 마음의 변화는 업의 산물입니다. 잠재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습관과 기억의 단편들이 어떤 조건을 만나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업

은 그대로이지만 조건이나 상황, 혹은 다른 변수에 따라 만들어지는 마음, 혹은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새로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업이 바뀌는 데는 아주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한두 가지 바꾼다고 해서 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습관화되면 업의 변화로도 이어지구요.

배우가 연기할 때는 배역을 맡은 인물에 깊이 몰입합니다. 몇 달 전부터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매소드 기법이지요. 촬영 기간이 길고 너무 과도하게 몰입이 되면, 작품 촬영이 끝나도 그 배역의 캐릭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 가면서 원래 자신의 캐릭터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지요. 많은 배우가 이런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캐릭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는 뜻하지 않게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덕적, 혹은 철학적 문제입니다. 배역의 인물은 당연히 가상의 인물이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은 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또 다른 가상의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그 인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정체성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캐릭터라면 과연 이것은 진짜일까요? 업은 나의 정체성이 되는데 가짜이면서도 실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형성된 어떤 캐릭터를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 캐릭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줄 뿐입니다. 부모로서, 부부 관계에서, 동료나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기타 사회적 관계에서 혼자 있느냐, 타인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내안의 다른 캐릭터 사이에 갈등도 발생합니다. 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것과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 갈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캐릭터는 달라지지만, 공통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업과 상황이 만나 그때그때 캐릭터를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은 결국 만들어진 나에 대한 고민이면서 어

떻게 만들어져 왔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앞으로 어떤 ‘나’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세상에는 많은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극히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지요. 온전하고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온전한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방향과 갈등,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나’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제한되고 왜곡되고 주관적인 사고를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업 또한 알고 보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재된 어떤 기능이 더 계발되거나 기능이 약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변화라고 인식합니다. 모든 잠재적인 기능은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중지능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자기 이해, 논리 수학, 대인 지능(공감), 신체운동, 공간지능, 음악, 자연 탐구 등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강점을 지닌 지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다중지능의 차원에서 업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더 계발해야 할 요소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기 이해 능력과 함께 꼭 계발되어야 할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에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겸손도 있고 지적 겸손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겸손은 더 공부하게 하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붓다는 업을 변화시키는데 크게는 세 가지, 즉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은 세부적으로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 등의 항목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계발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고 조화롭게 계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필요한 덕목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계발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에 대한 객관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부싷돌을 부딪쳐 불꽃을 튀긴다고 해서 바로 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

니다. 마른 솜털과 건조한 상황, 그리고 부단히 불꽃을 튀기는 노력이 이어져야 불이 피어오릅니다. 어찌다 터지는 불꽃을 체험하고 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꽃이 불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이 잠재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잠재된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작은 불꽃도 휘발성 가스를 만나 큰 폭발로 이어지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어떤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업의 긍정적 변화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어가는 과정, 털어내는 과정, 좀 더 놓아버리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관계와 소통은 늘어나고 저항과 마찰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새롭게 경험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업은 지난 과거도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미래 또한 새롭게 시뮬레이션할 것입니다. 내 존재에 부여하는 의미의 좌표가 달라 집니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교육원장

따뜻한 하루

생각은 몸을, 몸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미국에서 온 한 청년이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청년은 갈증이 나던 찰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벌컥벌컥, 꿀맛 같은 계곡물을 들이켠 후 몸을 돌리는 순간, 청년의 눈에 팻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POISON / 독약>

순간 자신이 독약이 들어있는 물을 마셨다고 생각한 청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구토가 나고, 몸에 열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허둥지둥 산에서 내려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병원을 찾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가 껄껄 웃으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팻말에 쓰인 단어는 프랑스어로

<POISSON X / 낚시 금지>입니다.”

청년은 혈색이 돌아오고 구토가 멈추더니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식이나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포기한 일들이 있었나요?

생각은 몸을 지배하고, 몸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암시를 하고 다시 도전해 보세요. 그럼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25. 5. 22>

마음챙김메커니즘
명상과 과학 ②
- 과학적이라는 환상

“과학은 현대에 필요한 다른 형태 종교일 수도”



과학은 인간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비합리적인 삶에서 더욱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인간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을 해석할 수 없다.

보통 명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뇌 자체의 기능과 능력을 기계적인 장치로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인 실험이다. 예를 들어, 뇌세포인 뉴런에 관해 연구하여 뇌의 작용을 파악한다. 대뇌는 기억이나 판단, 추리 등의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소뇌는 몸의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연수는 호흡, 심장박동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을 한다. 변연계는 감정, 행동, 욕망 등의 조절에 기여하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뇌과학 분야에서 증명해 낸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뇌의 기능이 존재하

는 장소를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는 해도, 우리가 이것들을 모르더라도 생각할 줄 모르거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욕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육체적인 장소일 뿐이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지, 이런 기능이 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과학적 증명이 사람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존의 명상법이 마치 과학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신비한 주술적인 느낌을 주는 데 반해, 과학적으로 증명한 현대의 서구 명상

은 마치 선진적이며, 합리적이며, 상대적으로 훌륭한 명상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 괴로움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명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람이 가지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명상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명상을 통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증명이고, 통계적 실험을 통해서만 명상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려준다. 과학적 증명은 명상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할 뿐이다. 임상적인 실험을 통

해 명상의 효과를 증명해 내는 것이 많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명상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들은 심리학에 명상을 담으려고 하지만, 뒷부분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색채, 즉 연기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상 기법은 심리학적 명상일 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증명은 인간의 괴로움이라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그 깊은 이면까지는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르게 인간 그 자체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삶이 녹아있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실험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통계는 여러 함정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표본의 오류', '잘못된 조사 방법', '잘못된 인과관계 추론',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편향'이다. 이런 오류로 인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명상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은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서구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명상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는 학자들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명상법은 논외로 하더라도, 불교에 기초한 명상법, 즉 사마타와 위빠사나, 그리고 선명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짧게는 백 년, 길게는 천 년 이상, 수많은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고 체득하면서 내려온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각각의 수행 전통으로 내려왔고,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비록 과학적 통계는 없지만 이런 수행 전통이 비과학적일 수는 있어도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다.

서구 심리학에서 명상의 중요한 요소인 Sati를 Mindfulness로 번역하고 의미를 정의할 때 종교적인 색채를 뺐다고 한다. 무엇이 종교적인 색채이길래 심리학적 명상에서 빼버렸을까? 심리학적 명상은 남방불교의 사마타 위빠사나 명상에 그 기원을 둔다. 남방불교이든 북방불교이든 불교엔 명상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줄기의 뿌리에 해당

하는 사상이 존재한다. 그것은 '연기설'이다. 연기설은 세상을 보는 이치이며, 이 연기설에 근거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윤회'이고 '업'이다. 이 연기설과 윤회설은 기독교 사상과 공존할 수가 없다.

서구의 기독교 사상은 창조설에 기원을 두고 절대적인 완전한 신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세상과 인간이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 창조설이며, 연기설은 기독교의 창조설과는 완전히 반대의 관점인 것이다. 이 연기설과 윤회설은 불교의 종교적인 부분은 물론 명상적인 부분에서도 절대적인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 명상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緣起)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 명상의 처음이자 끝인 것이다.

하지만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을 서구에 들여올 때, 기독교 사상과의 사상적 충돌에서 벗어나려고, 연기설을 종교적인 색채라고 규정지었고, 이를 제외한 명상의 기법만 빌려 심리학적 명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연기설은 인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 필요한 기본적인 사상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색채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연기설이다. 이 연기설을 제외한 사띠의 개념이 과연 정확한 의미인가? 사띠는 서양에 Mindfulness로 번역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마음챙김이 되었다. 마음챙김은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 마음을 챙기는 자, 마음챙김의 대상이 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나'라는 사실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마음챙김을 하는 순간, 대상과 관찰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관찰자도 대상이 되어 버리기 쉽다. 자신은 마음챙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해 관찰자인 자신이 관찰 대상인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두 관점은 붙어버리기 일쑤이다. 욕망이 욕망을 바라보

연기설과 윤회설은

불교의 종교적인 부분은 물론

명상적인 부분에서도 절대적인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 명상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緣起)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 명상의 처음이자 끝인 것이다.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명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연기(緣起)'를 보고 '무아(無我)'를 보며 '공(空)'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存在)로서의 자아'는 인정하지만 '실체(實體)로서의 자아'는 부정하는 것이다.

서구 심리학이 명상을 제대로 답을 수 있는가? 심리학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에 이름을 부여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많은 방법을 개발해 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이유에서 심리학에서는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명상을 활용한 치유법은 분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명상을 활용한 치유법은 단지 치유법일 뿐이지 명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에서 명상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는 것과 같다. 심리학이라는 틀 속에 명상을 집어넣으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심리학은 말 그대로 마음[心]의 이치[理]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명상은 마음 자체를 연구하고, 체험을 통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며, 나아가 마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코끼리를 해체하여 일부만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코끼리가 들어갈 정도로 큰 냉장고를 만드는 것이다. 해체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코끼리 고기일 뿐, 더 이상 코끼리가 아니다. 아직 심리학이 명상을 포함할 정도로 심오하거나 큰 학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심리학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심리학에서 치유법으로 명상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명상의 모든 의미를 담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법인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심리학이 심리학이 아니게 된다. 심리학은 넘어선 다른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학의 시대이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과학으로 대답한다. 과학은 인간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비합리적인 삶에서 더욱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인간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을 해석할 수 없다. 더구나 과학은 늘 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간을 해석하는 이론을 구하는 순간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하게 된다. 과학 자체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크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비합리적인 폭력성도 존재한다. 과학은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일 수 있다.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미디어션 봄 명상센터 대표

고전 속으로
시절이
빛을 다하면

百年亦夢爾

백 년 인생도 꿈일 뿐이니...



피꼬리는 게을러졌고 제비는 노쇠하였다.
고운 빛깔의 경치는 초여름의 아름다움이라서,
초록빛 잎사귀가 빼곡히 우거졌고 붉은빛 꽃잎은 듽성듬성하다.
너무 쉽게 사라져 가버리는 봄빛은 견디기가 어렵지.
백 년 인생도 꿈일 뿐이니, 세상 모든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앵용연로, 정속려경초연, 녹암홍희, 파내소광이철.
鶯慵燕老, 正屬麗景初妍, 綠暗紅稀, 巨耐韶光易歇.

백년역몽이, 만사어오하.
百年亦夢爾, 萬事於吾何?

- 신희(申欽, 1566~1628), <상촌집(象村集)> '수기치어(睡起致語)' 중에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의 여운이 달아나기 전에 얼른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곤 한다. 꿈에서 나는 다른 시절을 살고 왔다. 꿈의 시절 안에서 이제 안부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게 된 사람과 도란도란 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지금은 다 허물어진 옛날 시골 집 방에서 가족과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의 어느 지점에 잠깐 애뜻하게 놓였다가 오는 것이다. 꿈에서 걸어 나온 직후에 남는 게 심신을 휘감는 감각일 때도 있지만, 어느 날엔 명징한 문장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꽃 시절은 머지않아 다 떨어지고

꿈의 자극에 기인해 발동한 문장은 잠과 꿈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재빨리 메모장에 옮겨 적어야만 한다. 그렇게 모아온 문장에는 크고 작은 쓸쓸함이 묻어 있다.

어떤 시절은 몹시 찬란해서 동시에 슬프기도 하다. 시절이란 말이 곧 '시간[時]의 마디[節]'를 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 유한(有限)한 시간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의 꽃잎에 슬픔 한 방울이 맺혀 있는 건, 꽃의 시절은 머지않아 다 떨어

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일 테다. 조선 시대에 살았던 신희(申欽, 1566~1628) 선생도 잠깐의 단잠 끝에 일어나 밀려드는 생의 허망함에 대해 적었다. 그는 '수기치어(睡起致語)'에서 자신을 두른 풍경과 소리가 너무 빨리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며, 봄빛은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활짝 피어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찾아올 이별의 장면을 동시에 떠올리는 사람에게 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만개한 꽃 앞에서 있으면서도 색이 바래 금세 떨어질 꽃의 결말을 자주 가늠해 보게 되는 것이다. 봄의 애달픔은 먼 데까지 번져서 이내 신희 선생은 인생 전체도 꿈일 뿐이니, 세상만사가 무슨 의미냐며 통탄한다.

슬픔을 제쳐두는 용기를 내야

나 역시 봄을 무척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올봄에는 불쑥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났다. 결말의 이별을 일찌감치 슬피하며 절반의 기쁨만 느끼는 삶은 충분히 살아보았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것이다. <시경>의 '산유추(山有樞)' 중에 “그

대에게 멋진 옷이 있는데도 입고서 옷자락 끌며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 대에게 거마(車馬)가 있는데도 달리지 않고 몰지 않으면, 속절없이 덜컥 죽게 된 뒤엔 다른 사람이 이를 즐길 것이다[子有衣裳, 弗曳弗褻. 子有車馬, 弗馳弗驅. 宛其死矣, 他人是愉.]”라는 구절이 있다.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오늘 열렬히 사랑할 쪽을 선택해야 한다. 아까워하지 말고, 시절 안에 놓여 있을 때 한껏 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지금 시절에 주어진 선물 같은 순간의 즐거움에 몰두하려면 슬픔을 제쳐두는 용기를 내야만 한다.

꿈에서라도 깨닫게 될 테고

빛을 다한 시절은 어디로 갈까. 충분히 반짝였던 시절은 빛을 다하고 나서도 그림자를 남기리라. 그림자처럼 생의 뒤편에서 잠자코 있다가, 종종 꿈에 불쑥 등장하기도 하는 시절 그림자. 인생은 생각처럼 쉽게 무의미해지지 않는 것 같다. 신희 선생이 한철 봄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냐며 한스러워했지만, 의미와 무의미를 논할 필요도 없이 어찌면 세상만사가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내

가 모르는 이 시절의 의미는 나중에 꿈에서라도 깨닫게 될 테고, 그때 꼭 했어야 하는 말은 언젠가 꿈에서라도 하게 될 수 있다. 어느 날 꿈에서 깨자마자 메모장을 열어 '꿈에서 좋았던 걸로 충분했다.'라고 적어 두었다. 충분했던 잠깐의 시간을 모으려서 나의 시절을 채워가고 싶다. 짧고 긴 우리의 시절에는 영영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누군가의 꿈속에서 불쑥 또 이어져갈지도 모른다. 시절이 빛을 다하고도 이어질 생의 의미는 효용 너머에 있다.

봄빛이 한 뼘만큼 키워놓고 떠난 꽃나무 가지에선 잎이 넓어지다가 이내 열매가 달릴 것이다. 그러다 가을 빛에 열매가 익어 떨어지고 나면, 가지 위로 쌓인 눈송이를 녹이는 겨울 빛이 찾아오겠지. 시절은 저마다의 빛으로 우리를 키운다. 봄빛이 다하고 여름빛이 찾아왔으니, 피꼬리와 제비는 잠시 게으르게 두고 우리는 재빨리 여름만의 기쁨을 누릴 차례이다.

최 다 정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한자 줄기>, <시가 된 미래에서> 저자

문화유산해설 |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

마치 간절하게

소원을 빌듯 두 손을 꼭 맞잡은 것처럼

위엄을 갖추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듯한 불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의 손 모양이지만, 마치 간절하게 소원을 빌듯 두 손을 꼭 맞잡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상은 광해군비였던 장렬왕후(章烈王后, 문성군부인 유씨, 1576~1623)가 임금인 광해군과 세자, 세자빈을 위해 발원하여 현진(玄眞)을 비롯한 17명의 승려 장인이 만들었던 11구의 불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려 장인은 누구인가

승려 장인은 불상이나 불화와 같은 불교의 신앙 대상, 건물, 불구(佛具) 등을 만드는 승려를 뜻합니다. 이들은 깨달음의 길을 걷는 출가 수행승인 동시에 사찰에 필요한 기물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승려 장인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승려 장인은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식인으로 우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더욱 크게 일어나면서 이들의 활동도 여러 갈래로 나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유교가 국가 지배 이념으로 채택된 조선 시대에는 승려 장인의 지위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1592~1598)으로 피해를 당한 전국의 사찰을 승려 장인이 중심이 되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사찰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승려 장인 집단이 형성되었고, 조선 후기에 크게 성장하여 수많은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습니다.

승려 장인은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마치 선승(禪僧)이 법맥(法脈)을 이어가듯 자기들의 계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행승이자 전문 기술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찰에 필요한 기물을 만들었던 승려 장인이라는 집단은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왕비의 부름을 받은 승려 장인

이 불상 안에서 조각을 성물로 변모시키는 상징물인 복장물(腹藏物)을 비롯해, 어떤 이유로 불사(佛事)가 이루어졌고 누가 참여했는지 적힌 발원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렬왕후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돈독히 믿사옵니다. (중략) 이상과 같은 커다란 소원을 품고 삼가 보탕(寶帑, 왕실 금고)의 돈을 기부하고 뛰어난 장인을 모집하여 비로자나불 두 분, 석가여래 세 분, 노사나여래 두 분, 미타여래 두 분,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조성하고, 아울러 삼신불을 그린 대영산회탱 두 폭, 용화회탱 두 폭, 오십삼불탱 한 폭, 중단탱 한 폭, 하단탱 한 폭을 공경히 그렸습니다. 장인들이 일을 이미 마무리하여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 두 절에 봉안함으로써 우러러 지극한 정성을 표하되, 초심을 잃지 않고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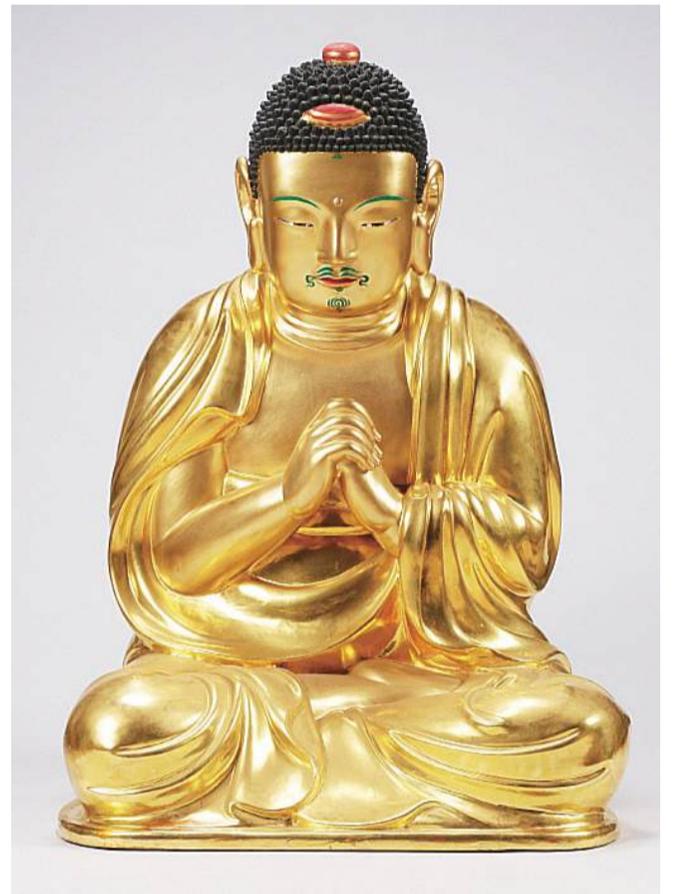
자수사와 인수사는 쉼 밖에 있었던 왕실 여인들의 말년 수행처입니다. 발원문에 따르면 불상 11구, 불화 7점의 발원을 주도한 이는 광해군비였던 장렬왕후입니다. 하지만 장렬왕후는 불사가 끝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광해군과 함께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조성된 불상 11구와 불화 7점 가운데 이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을 비롯해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이렇게 3구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발원문에는 조각승 현진, 응원(應元), 수연(守衍), 옥명(玉明),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淸虛), 성인(性仁), 보희(普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修), 태감(太鑑) 등의 조상 화원(造像畫員)과 철을 다루는 네 명(성옥, 승일, 밀연, 의인)의 야장(冶匠)이 등장합니다. 원래 화원은 그림에 관한 일을 도맡아 하는 조선시대 도화서(圖畫署) 소속 관원을 이르는 호칭입니다. 왜 승려 장인을 ‘화원’이라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토목 사업 등 국가의 공식적인 일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조각승 명단을 잘 살펴보면 여러 조각승 집단이 모여 함께 공동으로 작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조각승인 현진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평가됩니다. 응원과 인균 역시 따로 집단을 이루어 활동했던 조각승입니다. 수연은 보희와 야장으로 참여한 성옥(性玉)을 이끌던 조각승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에서 활동하던 조



현진(玄眞) 등 17명,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 조선 1622년, 높이 117.5cm, 보물, 구10416, 국립중앙박물관 유수란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저작물.

각승이 어떻게 왕실의 부름을 받아 함께 불상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은 성리학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지만 왕실은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세의 평안을 빌기 위해 불교에 의지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공을 세운 승려들은 점차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력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승려 장인은 왕실에서 발원한 불사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는 17세기 전반 승려의 총대장이었던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있었습니다. 벽암 각성은 전국에서 모인 승려 장인을 이끌고 자수사와 인수사의 대규모 불사를 감독했습니다. 이처럼 승려 장인은 왕실 불사를 맡아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고, 조선의 사찰 문화를 풍성하게 가꾸었습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 흠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지혜의 프락 | 이솝 우화 속 배려의 미학

“아나올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천안제일(天眼第一) 이나라”

이솝 우화는 생애주기별로 꺼내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청소년기에는 도덕적 교훈이었다. 그런데 장년기에는 사회적 배경으로 해석하게 되더니, 노년기에 가까워지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만든다. 이렇듯 이솝 우화에는 인간의 삶을 성숙시키는 코드가 있다.

나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솝 우화는 ‘토끼와 거북이’, ‘여우와 두루미’이다.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위해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여우와 두루미는 개개인 사이에서 어떤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거북이의 값진 승리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다. 어느 날 토끼가 놀림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였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진 것을 보고 중간에 잠깐 쉬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잠에서 깬 토끼는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다.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어렸을 때는 느리다고 거북이를 놀려대는 토끼가 너무 미웠다. 내가 중증의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또래 아이가 쉽게 하는 일을 못 하거나, 하더라도 매우 느렸기에 거북이에 나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었다.

토끼는 신체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덕에 많은 강점이 있는 사람을 요즘 세태에서 금수저라고 하는데, 토끼도 금수저이다.

그에 반해 거북이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장애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흠수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흠수

저와 금수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기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다는 발상은 예술 영역이다.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패배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다. 상대를 얕잡아보는 교만이 어이없는 실패를 만들어냈다.

이렇듯 노력하면 승리하는 결과는 문화 영역이다. 문화는 그 사회가 수용하는 관습이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문화가 형성되면 공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복지 영역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이다. 복지는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토끼와 거북이는 나와 타자의 경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경쟁인지도 모른다. 근면한 마음이 강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쉬고 싶고, 일하기 싫어서 나태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기는 타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다. 긍정이 이기면 성실함이 빛나는 것이고, 부정이 이기면 게을러져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두루미의 통쾌한 반격

심술꾸러기 여우가 두루미에게 ‘한턱낼 테니까 놀러 와.’라고 하면서 집으로 초대했다. 여우는 두루미에게 일부러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밀었다. 두루미는 부리가 길므로 수프를 먹을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우는 맛있게 수프를 먹었다.

얼마 후 두루미는 ‘예전에 음식 대접을 잘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며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두루미는 일부러 고기를 주둥이가 긴 병



에 담아서 여우에게 내밀었다. 여우는 부리가 없으므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두루미는 여우가 그랬던 것처럼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

여우와 두루미는 누가 더 강점이 있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이다. 여우와 두루미는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저 다를 뿐이다.

여우가 순수한 마음으로 두루미를 초대했다면 손님을 위해 두루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두루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피서 준비했겠지만, 여우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다.

두루미를 약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두루미도 여우의 속마음을 잘 알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했다.

우리 사회는 갑과 을로 나뉘어서 갑은 갑질하고 을은 을질한다고 서로 공격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역할이 다를 뿐 갑질과 을질이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찬가지로 장애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달

라지진 않는다. 장애를 보완해 주는 욕구가 필요한 것 뿐이다.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서로를 배려해 주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부처님의 배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나올은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다가 실명한다. 부처님이 아나올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아나올은 앞을 볼 수 없게 된 후에도 실명 전에 하던 실력으로 바늘질을 그런대로 할 수 있었지만, 바늘귀를 꿰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아신 부처님께서 아나올을 위해 직접 바늘귀를 끼워주셨다고 한다. (《증일아함경》). 그리고 아나올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천안제일(天眼第一)이라 하며 아나올의 장애를 무능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주셨다.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존귀한 존재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배려라 할 것이다.

살다 보면 유행가의 위로

바람을 거역하지 않는 꽃의 향기로,
선하고 어진 사람의 향기가 되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별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아, 이게 그 노래구나.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준다는 바로 그 노래. 별인 줄 알았던 자기가 하찮은 별레였음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존재이며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고, 읊조리듯 잔잔하게 번져오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20여 년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고, 150일 노숙으로 몸무게가 49kg까지 빠진 적도 있었다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고 또 울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외치던 시절도 있었다던데...’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묻어나는 심지 굳은 희망이 그의 인생인 듯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나는 반딧불>은 이제 더 이상 황가람의 것이 아니다. 성공 뒤에 가려진 눈물과 노력이 작은 반딧불이 되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불빛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유행가가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게 곧 늙는다는 징조라고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람>(노사연)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토닥토닥 위로를 건넨다. 그렇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살아온 세월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모난 성정도 둥글어져 남의 일도 내 일인 듯 눈물도 많아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사

는 세상 이야기이자 사랑과 눈물, 이별이며, 가슴에 와닿아 당신의 노래가 되고, 내일이 있어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유행가>(송대관)가 귀에 속속 들어오는 이유다.

유행가는 명곡을 포함하는 큰 의미의 대중가요와 달리, 예술적인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큰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최근에는 가사나 멜로디가 어려워져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따라 부를 엄두조차 나지 않는 노래가 정말 많다. 치열한 경쟁 탓이겠지만 히트곡을 내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나 할까. 아무리 들어도 의미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별 내용도 없는 가사가 흥수를 이루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정말 늙어가는 모양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던 노래야말로 지금의 그것과는 품격이 다른 진정한 유행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니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유행가의 가장 큰 미덕은 위로다. 생각해 보시라. 하나부터 열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졌다,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러니 내가 최고다, 그렇게 배 내밀고 평평거리는 유행가가 있던가. 이별이 아프고, 가난이 버겁고, 좌절과 절망으로 눈물짓고..., 그렇게 고단한 서민의 삶이 절절하게 녹아있어야 진짜 유행가가 된다. 어느 시절이든 많은 이를 울고 웃게 했던 노래는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를 콩나물 대가리춤으로 여기는 사람도 가슴으로 함께 부르는 유행가다.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떤가. 먼지 쌓인 앨범 속에서도 바래지 않은 사진처럼, 아름다운 추억이 아로새겨진 삶의 한 페이지를 가만히

들춰보면 된다. 오래된 친구처럼 때로는 아스라한 그리움으로, 때로는 따스한 위로와 희망으로 도란도란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는 유행가와 만남은 그래서 반갑고 만만하다.

일제강점기와 1945년 광복을 전후해 나라 잃은 설움과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던 유행가(여기서는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는 한국전쟁과 휴전을 거치면서 분단의 아픔을 노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행가로 알려진 ‘이 풍진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로 시작되는 <희망가>(박채선·이류색)가 그랬고, <황성 옛터>(이애리수)도 꿈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인생무상을 노래했다. <타향살이>(고복수), <목포의 눈물>(이난영), <눈물 젖은 두만강>(김정구), <홍도야 우지 마라>(김영춘), <번지 없는 주막>(백년설)도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설움과 애환을 담은 망향가이자 저항의 노래였다.

<귀국선>(이인권), <청춘의 꿈>(김용대), <럭키 서울>(현인), <낭랑 18세>(백난아)처럼 활기찬 멜로디에 실려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던 광복의 기쁨은 한국전쟁과 함께 <전우야 잘 자라>(현인), <전선 야곡>(신세영)을 거쳐 <경상도 아가씨>(박재홍), <군세어라 금순아>(현인), <이별의 부산정거장>(남인수), <단장의 미아리고개>(이해연)로 어지며 전쟁의 참상과 피난민의 고단한 삶을 보여 준다.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니었는데 우리 집에는 반달이처럼 커다란 전축이 있었다. 어린 나를 설레게 했던 라디오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이미자)의 주제를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젊은 시절의 꿈을 <못다 핀 꽃 한 송이>(김수철)처럼 가슴에 품고 살던 아버지가 색시집에서 젓가

락을 두드리며 <사랑은 눈물의 씨앗>(나훈아)을 열창하던 것도 그 무렵이다. 그런 날이면 젓머미 막넛동생을 업고 어둑해진 마당 가를 서성이며 소리 낮춰 부르던 어머니의 <동백 아가씨>(이미자)가 어찌면 그리도 <가슴 아프게>(남진) 들리던지.

가부장적인 남자의 사랑법이 <무너진 사랑탑>(남인수)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지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김추자)의 파격적인 노래와 춤이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용필)가 되고 <광화문 연가>(이문세)가 되어 <아름다운 강산>(신중현)에 울려 퍼졌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패티 김)도, <난 알아요>(서태지와 아이들)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김건모)도, <초혼>(장윤정)도,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태진아)도, <다 함께 차차차>(설운도)도, <내 나이가 어때서>(오승근)도 사랑을 노래했다. <해 뜰 날>(송대관)의 희망이 <백만 송이 장미>(심수봉)로 피어나 수많은 <시절 인연>(이찬원)과 <만남>(노사연)을 만드는 작은 기적, 그게 유행가가 아닐까.

외람되어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라는 『법구경』 구절을 떠올려본다. 바람을 거역하지 않는 꽃의 향기로, 선하고 어진 사람의 향기가 되어 많은 이의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위로, 그게 바로 삶과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인 것 같다.

이 옥 경

수필가 · 방송작가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1985년 문예지(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배움의 물음

“그러니까 인도에서 무엇을 배웠나?”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인상이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좋아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불신 등의 감정을 한 꺼풀 벗겨보면 걱정이거나 무지 때문일 수 있다. 잘 만들어진 연예인의 이미지가 그의 경솔한 언행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언론이나 기업, 정권 등은 홍보, 광고, 선전, 선동 등을 위해 허상의 이미지를 교묘히 조작한다.

이해타산을 떠난 불합리한 감정으로 특정 집단을 대하는 예도 있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문화권에 대한 편견도 분명 존재한다. 사적인 경험에 의지하여 전체를 속단하는 때도 있다. 불편했던 한순간을 통해 평생 개인과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지닐 수도 있다. 세상을 인식하는 일이 진정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은 전체와 역사와 집단과 개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인도(印度)라는 나라에 관해 물어보면 각자가 가진 문화적 경험에 따라 수많은 답이 쏟아진다. 성인(聖人)의 고향, 가난한 나라, 초일류 과학기술 국가, 계급이 존재하는 야만의 땅, 최고의 여행지, 최악의 관광지, 흉악한 범죄 국가, 순박한 사람이 사는 곳. 천차만별에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모든 판단에는 배경이 되는 인식과 경험이 반드시 있다. 하지만 백인 백색의 대답을 통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오래전 인도에 대해 동경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책을 통해 접한 그곳은 어디서나 성자를 만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 속에 관용이 넘치고, 사람들이 지혜를 숭상하며 자비

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땅이었다. 그런 종교적 문화적 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 천 년 전에도 진리를 구하는 이들이 역경을 딛고 순례를 떠났던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30여 년 전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그 환상은 여지없이 박살이 나버렸다.

감당할 수 없는 소음, 짐승과 인간과 차가 뒤섞인 도로, 햇빛은 걸인과 감당할 수 없는 사치, 동족에 대한 멸시와 가차 없는 폭력. 모든 이가 부처님과 같고 마하뜨마 간디와 같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환상과 현실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 게다가 카레 냄새는 참을 수 없었다. 침실, 거리, 차, 사람, 음식 어디에서나 그들이 맛살라 향이라 부르는 카레 냄새가 났다. 토할 것 같았다.

뉴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에서 만난 충격적인 경험은 인도 도착 다음 날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히말라야 산간 지역까지 이동을 위해 예약한 국내선 프로펠러 비행기는 이륙은커녕 문이 닫히지도 않았다. 정비사 한 명이 와서 문을 닫아 보고 가우뚱거리며 돌아가면 다른 이가 와서 문을 닫아 본다. 그 개미 떼 같은 행렬을 지속하다가 두 시간쯤 흐른 후 여럿이 달려들어 간신히 문을 닫았다. 망치 소리도 들렸다.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찌는 듯한 우기의 인도 날씨를 불안과 함께 진땀을 흘리며 견뎌야 했다.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비행기가 날아오르지 말 것을 빌고 있었다.

외국인은 그야말로 죽음을 앞둔 흉한 인상이었으나, 인도인 승객은 천하태평이었다. 뭐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신문을 보거나 쿨쿨 잠에 빠져들어 있었다. 비행기가 날아오르



자 앞자리에 앉은 인도 소녀는 몸을 돌려 이방인을 향한 집요한 심문을 시작했다. “너 어디서 왔니?” “직업은?” 등등 기본적인 물음이 오가고 나서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인도에 와서 무엇을 배웠나?” 생뚱맞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어제 막 도착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무엇을 배웠나?”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아니 어제 와서 인도에서 무엇을 배웠나고?” 어떤 대답을 해도 그 소녀의 질문은 단 한 가지 “인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였다.

소녀의 집요한 질문은 비행기 창문 넘어 구름의 바다 위로 히말라야 연봉의 눈 덮인 봉우리가 줄지어 빛날 때까지 이어졌다. 흰머리 산들의 경탄할 만한 모습은 세속의 마음을 신들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소녀도 질문을 그치고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빼앗겨 침묵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원색의 빛깔들과 지긋지긋한 카레 냄새, 혼돈 속에서 겨우 하룻밤을 지낸 이가 인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배움은 학습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순간의 눈빛으로도 천년의 지혜를 알아보고 배울 수 있다. 배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배우는 이의 마음이다.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그때의 솔직한 대답은 “나는 이 괴롭고 거지 같은 인도 땅에서 아무 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라는 자백이 었을 것이다. 배울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경험의 충격에 빠져 배울 수도, 배우려는 마음도 없었다. 지옥에서도 분명 배울 바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인가를 대할 때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마주하는 나의 마음일 것이다. 그를 통해 무엇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가는 결국 나에게 달린 문제이다.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을 때 진지하게 물어보자. “나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로부터 세상이 만든 허상을 깨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김 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조자> 외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		②	㉣	
				③㉤					
							④㉥		㉦
⑤	㉧			⑥		㉨			
			⑦						
	⑧	㉩				⑨		㉪	
㉫		⑩						⑪	#
⑫				⑬㉬		㉭			
⑭								⑮	

가로 열쇠

- ①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업보가 소멸되는 진언
- ② 명절 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향에서 지내는 제사
- ③ 순국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법정기념일
- ④ 모임이나 예식에서 차례를 따라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 ⑤ 꽃말은 순결, 뛰어난 미인. 왕벚나무에서 피는 꽃
- ⑥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돌봄
- ⑦ 예전에, 오형 가운데 죄인을 귀양 보내는 일을 이르던 말
- ⑧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풍속
- ⑨ 어떤 장소를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기자들에게만 부여된 표
- ⑩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 ⑪ 관계되는 둘 이상의 사이에서 이쪽과 저쪽 모두
- ⑫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성질
- ⑬ 돌멩이보다 크고 바위보다 작은 비교적 큰 돌 덩어리
- ⑭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추는 춤
- ⑮ 나라 사이에 생기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일

세로 열쇠

- ㉠ 서방을 지키면서 나쁜 것을 물리치고 불심을 일으키는 사천왕 중 한 분
-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 ㉢ 늘이고 넓혀 충실하게 함
- ㉣ 객지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갖는 모임
- ㉤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고 수배망을 펴는 일
- ㉥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
- ㉦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
- ㉧ 산벚나무, 가는잎벚나무, 개벚나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제사 때, 제물을 차려 벌여 놓는 상
- ㉩ 교양 없고 식견이 좁으며,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성질
- ㉪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재수 따위를 판단함
- ㉫ 귀여움이나 환심을 사려고 일부러 어리고 예쁜 태도를 보이며 버릇없이 구는 일
- ㉬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곧고 꿰뚫함
- ㉭ 지능이 높고 사람과도 친근한 바다의 포유류
- # 나라를 위한 진호국가불공과 수호국계주진언 움흙야호사, ○○불교

최고의 예술

마지막 공부

배우고 미끄러지는 것

삶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행복은 좋은 느낌이다. 모든 감각 인지 과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따른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감각 인지를 하고 바람직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 곧 행복해진다. 동서남의 행복론은 그 중심에 '느낌'을 두고, 그 느낌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각론까지 다루고 있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 번번이 다 빠르게 마음에 출렁임이 생긴다. 그 사람과의 소통 통로가 닫히려 한다. 어째서 기분이 나쁜가?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의 얼굴이 나와 다르면 기분 나쁜가? 그렇다면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왜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기분이 나쁜가?

'현실 수용'을 배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에 따른 순리로 옳고 그른 것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 무기물에 내가 시비를 걸고 내가 출렁인다. 그러니까 주관성의 잣대를 휘두르는 대신 '구나'와 '졌지'로 수용해 본다. '아,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그런 판단 까닭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이렇게 끄덕이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렇게 통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다. 그런 과정에 관계는 한 계단 더 올라선다. 그렇게 배웠는데 역시 시

비질에 빠진다. 고질병이다. 그러나 시비질도 시비할 일은 아니다. 시비질하는 나를 수용해 본다. '구나'와 '졌지'를 적용해 본다. '아, 빠졌구나. 그렇지. 세세생생 나로 살아왔는데 그 버릇이 단번에 없어지겠어?' 그것은 병통도 아니고, 그 안에 그 과로 나타나는 우주의 순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중생을 수용해 주면 어느새 '기분 나쁨'과 동일시되고 이중 화살까지 쏘아대고 있는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답답하고 맑은 바라봄이 회복된다. 그만큼 성숙한 것이다. 참으로 신기하다. 내가 지글거리는 마음과 동일시하면 나는 출렁이는 병통이요, 그냥 바라보는 마음과 동일시하면 나는 평화로움이다.

꽃밭 속에서 거미줄이 반짝인다. 이슬방울마다 그 인에 그 과가 섬세하게 작용하여 저마다 아름답다. 거미도 이슬도 꽃도 아름답다. 자연의 예술이다. 스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끄덕인다. 그런데 다시 미끄러진다. 배우고 미끄러지는 것은 훌륭한 실습이다.

한 사람이 익어간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 말, 한 조각 느낌에 맑게 깨어서 기민하게 관리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궁극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살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유 소 립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에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소통의 한의학 | 감초의 관계학

“보제^{補劑}에 넣으면 보익^{補益}하고, 찬약에 넣으면 열을 사^瀉하고…”

내 고향은 따뜻한 남해이다. 어릴 적 고향 집에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밭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 평이나 될까 하는 크기였다. 이 밭에 마늘도 심고, 콩도 심고 해서 가난한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겨울에는 주로 마늘을 심었다. 마늘 사이로 부추, 상추, 달래 나물도 심었는데 겨울 반찬거리로 그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밖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이 밭에 감초를 심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 초등 저학년 때인지라, 어떤 의견을 낼 나이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반대를 무릅쓰고, ‘감초를 심으면 4~5년 지나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묘목 판매상의 말만 믿고 끝내 모든 밭에 감초를 심었다.

감초는 잘 자랐다. 대신 이 밭에 마늘도 콩도 심을 수 없었고, 반찬거리로 즐겨 먹던 상추, 부추, 달래 나물 등은 4년간 수확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4년간 어머니의 끊임없는 공격은 불문가지이다. 마침내 4년이 지나 감초를 수확하게 되었다. 감초가 잘 자라기는 했지만, 산에 있는 밭이라 감초 뿌리가 아주 굵지는 않았고, 또 사질양토의 토양이라 뿌리가 상당히 깊이 파고 들어간 상태였다. 덕분에 감초를 수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수확한 감초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수십 가마 이상의 감초를 캐내어 밭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집에서 건조해서 보관하는 것은 더욱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잘될 것으로 예상했던 감초 판매는 더욱 어려웠



다. 아버지의 곤궁한 입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의 최종 승자는 아니나 다를까, 애초에 감초 묘목을 비싸게 판 판매상들이었다. 애초에 우리나라 기후에 감초는 적합한 작물은 아니었고, 땅심이 약한 토지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감초로 인해 우리 집은 상당한 곤경을 겪었지만, 감초는 ‘약방의 감초’로 불릴 정도로 쓰임이 많은 약초이다.

“보제(補劑)에 넣으면 보익(補益)하고, 찬약에 넣으면 열을 사(瀉)하고, 발한제(發汗劑)에 넣으면 해기(解肌)하고, 작용에 강한 약에 넣으면 정기(正氣)의 손상을 완화하고, 윤제(潤劑)에 쓰이면 양혈(養血)하고, 아울러 모든 독(毒)을 풀어준다. 아울러 태아독(胎兒毒)에 쓸 때는 국노(國老)라고 부른다.”

이처럼 감초는 백독을 해독하고 모든 약제의 약성을 더 끌어 올리기도 하고 중화하기도 하며, 강한 약제에 대해서는 인체의 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 관계의 역할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는 약초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약을 조화시켜 상충하지 않게 하며, 오두나 과두에 중독되었을 때 감초를 먹으면 곧 편안해지는 효과가 신묘하다고 한다.

이처럼 감초는 자기 자신도 독특한 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약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약초(藥草) 관계학(關係學)의 선약(仙藥)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있다.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직설적인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다. 모임에서 성격이 특출한 사람만 많으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기 어렵다. 중간에서 서로의 관계를 조율하고 다독이며 느린 사람을 이끌어오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은 활력이 생기고 원활하게 굴러간다.

이는 더 큰 기업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강한 의견을 중재하고 서로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보다 유연해지고 본래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인재를 사회에서는 국노(國老)라고 부른다.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관계에서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파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그리워진다.





고창읍성에서 김기성 강학당까지 가는 전불길

이 보인다. 고창읍성은 예로부터 성밖기로도 유명하다. 한 번 돌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두 번 돌면 무병장수, 세 번 돌면 극락왕생한다고 전해지니, 3회는 기본이다.

시(始)와 종(終), 그리고 절터의 흔적

성의 시작을 알리는 ‘시(始)’와 완성을 알리는 ‘종(終)’ 표석이 이어진다. 그 옆으로는 고부, 김제, 영광, 정읍, 제주 등 각 군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인근 19개 고을이 축성에 동원된 흔적으로, 백성들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 성은 수많은 전란을 견디며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그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성곽을 바라보다 특별한 돌을 발견했다. 마치 절 건축에 쓰였을 법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심지어 문양이 새겨진 것도 있었다. 아마 절터에서 징발해 온 듯하다. 지금은 성곽의 한 부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안타까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전불길의 시작과 만정 김소희 선생

등양루를 지나 성의 중간쯤에

서 전불길이 시작된다. 전불길은 김기서 학당이 자리한 옛 전불사 터까지 이어지는 약 4km의 산길이다. 본격적인 전불길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하늘을 덮는다. 햇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긴 그늘과 시원한 공기가 마음마저 씻어준다. 잔돌 하나 없는 부드러운 황톳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진다.

약 2.5km쯤 걸었을까.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만정(晩汀) 김소희’. 고창이 낳은 국악의 거장, 명창 김소희 선생의 묘가 100m 아래에 있다는 안내판을 따라 발길을 돌린다. 잠시 묘소에 들러 인사드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김기서 강학당과 취석정

전불길의 끝자락에는 김기서 강학당이 있다. 이곳은 원래 전불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로, 강학당은 조선 전기 학자 김기서가 기묘 사화를 피해 은거하며 후학을 가르친 곳이다. 그의 호를 딴 돈목재(敦睦齋)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조선 전기 지붕 구조의 완전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귀한 건물이다.

예전에 이곳을 찾았을 땐 복원

중이라 뼈대만 남아 있었는데, 팔작지붕의 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어 감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조금 더 걸어 내려가면 취석정이 나타난다. 호도마을을 지나 노동저수지로 가다 보면 커다란 소나무와 버드나무 사이에 단정하게 서 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친근한 인상의 정자다. 주위에 흩어진 바위들이 마치 취한 듯 자연스러워, ‘취석정(醉石亭)’이라는 이름과 절묘하게 어울린다. 기묘 사화로 낙향한 김경희가 세운 이정자는, 후손이 1871년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 고창읍성으로

전불길을 따라 걸은 뒤 다시 고창읍성 중간쯤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성곽의 서쪽을 따라 외성을 돈다. 앞서 등양루를 오르던 것처럼 성곽의 외벽은 여전하다. 진서루는 등양루와 같은 구조의 옹성을 품고 나를 맞는다. ‘서쪽을 진압한다’는 뜻처럼, 아마도 서해에서 침입하는 왜적을 경계했을 것이다.

길을 따라 내려오니, 오전에 출발했던 공북루에 다시 도착했다. 성을 한 바퀴 돌고 전불길까지 다녀온 셈이다.



성곽에는 어느 절의 기단에 쓰였을직한 문양있는 반듯한 돌도 쌓여있다.



취석정의 소나무와 버드나무



진서루와 옹성

박성기

자유 여행가
도서출판 깊은샘 대표
저서 <걷는 자의 기쁨>

정지용의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

정지용

해바라기씨를 심자.
담 모롱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우리가 눈감고 한 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이 입 맞추고 가고

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아니 든다.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깹! 지르고 간 놈이
오오, 사철나무 앞에 숨은
청개고리 고놈이다.

어린이와 동물이
함께한 씨앗 심기

해바라기씨를 심는 계절에 해바라기씨를 시로 맛보는 일은 유쾌한 일이다. 지은이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은 우리나라 시문학의 개척자로서, 모더니즘 시와 서정시, 동시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동시는 1926년부터 방정환 주간의 <어린이>지 등에 발표해 왔는데, 1939년에 와서 <아이 생활>지에 성공작 <해바라기씨>를 발표하게 된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 갖 시집은 새댁과 청개구리 어린이와 고양이 등장하는 동화 한편이 숨어 있는 시

해바라기씨를 심은 이는 해바라기씨를 심자, 하고 나선 어린이이다. 나이가 들지 않은 꼬마인 것 같다. 시의 내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해바라기를 심은 곳은 꼬마들 숨바꼭질 터가 돼 주던 담 모퉁이다. 장소로 봐서 많은 씨를 심은 것 같지는 않다. 한 알 아니면 두 알이다.

그런데 심기 전에 마음을 써야 할 일이 있다. 참새 눈을 숨겨야 한다. 참새 입에는 해바라기씨가 과한 크기일지 모른다. 수탉이나 엄마 닭 눈은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심은 해바라기씨를 흙으로 덮고, 누나는 손으로 다진다. 바둑이는 앞발로 다진다. 고양이는 꼬리로 다진다. 여기서, 싹틔움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 밤이슬이다.

밤이슬은, 꼬마가 자는 밤 동안에 씨앗이 덮고 있는 흙 위에 놓여 같이 잠을 잔다. “싹틔움에는 내 힘이 있어야 해!”하고 속삭였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햇빛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씨앗에 주는 입맞춤이다. 그것도 꼬마가 이웃에 간 사이에 살짝이

이뤄졌다 한다. 햇빛과의 입맞춤에서 “쪽!” 소리가 났을 거다.

해바라기씨 심기는 생명 사랑의 뜻을 지닌 꼬마와 누나의 손, 바둑이의 발, 고양이 꼬리, 밤이슬의 속삭임, 햇빛의 입맞춤이 어우러진 협동 작업이었다.

그런데 싹틈이란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날의 해바라기씨를 족두리 쓰고 시집은 새색시에 견주었는데, 싹 좋은 비유다. 사흘이 돼도 고개를 아니 든다고 했다. 수줍음 때문이었다.

청개구리 녀석은 성미가 별나게 급하다. 새색시 모습으로 고개를 내미는 해바라기 싹을 보려고 사철나무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만 “깹!” 소리를 치고 만다. “아이구 답답해!” 그 소리였을 게다.

그러나 해바라기씨는, 마침내 싹틀 것이다. 키다리애다 환한 웃음으로 집을 지키며 꼬마들 여름 동무가 될 것이다.

정지용의 동시 ‘해바라기씨’ 속에는 이처럼, 짙막한 동화(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래서 ‘동화와 동시는 하나의 뿌리’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한다.

한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로 시작하는 시 ‘향수’로 널리 알려진 정지용 시인은 섬세한 이미지 구사와 언어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보여줬던 193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 한 명이였다.

신현득

아동문학가, 시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이정수	5/19	20,000	법황사	인선	4/21	10,000	정각사	법일	5/20	10,000	
	이정수	5/19	10,000		정계월	4/21	10,000		제석사	이진승	5/5	10,000
	최동혁	5/19	10,000		박미경	4/25	10,000	총지사	김정환	5/4	10,000	
	최지유	5/19	10,000	벗고을어린이집	이민선	5/2	80,000		정연경	5/6	10,000	
	도관	5/19	2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4/25	10,000		유은혁	5/6	10,000	
	지종영	5/19	20,000		박태길	4/28	100,000		신현태	5/11	10,000	
	석상민	5/19	10,000		박필남	5/13	10,000	백귀임	5/12	10,000		
관성사	법선	4/21	10,000	삼밀사	묘홍	5/20	10,000	통리원	김평석	5/20	10,000	
국광사	진여	4/21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신찬호	4/25	10,000	해정사	최영례	4/28	10,000	
	진여	5/20	10,000		이태운	4/25	10,000		조성기	5/16	30,000	
기로스승	공덕성	4/21	20,000		나석원	4/25	50,000	화음사	강동화	4/25	10,000	
	수증원	4/21	10,000		박현정	4/25	20,000		송영근	5/1	10,000	
	밀공정	4/21	10,000	세곡다함께 키움센터	김경희	4/25	30,000		송하나	5/1	10,000	
	법지원	4/21	10,000		최선해	4/25	10,000		송호영	5/1	10,000	
	일성혜	4/21	10,000	남경식	4/29	10,000	힐스어린이집		박대영	5/1	10,000	
	사홍화	4/21	10,000	수계사	자심관	5/20			10,000	박대성	5/1	10,000
	선도원	4/21	10,000	수인사	법상	4/22			20,000	홍춘자	5/1	10,000
	안주화	4/21	10,000		법상	5/20			20,000	무명씨	5/2	10,000
	진일심	4/21	10,000	시범사	이순영	5/9	20,000	이성희	5/15	10,000		
	최상관	4/21	10,000	혜광	5/11	10,000	위드다르마 후원	곽방은	5/12	80,000		
	연등원	4/21	10,000	실지사	황성녀	5/7		10,000	보명심	5/20	10,000	
	자선화	4/21	10,000	양지복지회관	서영주	4/28		10,000	우인	5/20	10,000	
	승효제	4/21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4/28		80,000	자행정 전수	5/20	10,000	
	주신제	4/21	10,000	운천사	보명심	4/22		10,000	남혜	5/19	10,000	
총지화	4/21	10,000	우인		4/22	10,000		총지화	5/19	10,000		
덕화사	법상인	4/22	20,000		반야화	5/11		20,000	자선화	5/19	10,000	
	법상인	5/20	20,000		반야화	5/14		20,000	공덕성	5/19	10,000	
동해사	송인근	4/21	10,000	보명심	5/20	10,000		법공	5/19	10,000		
	송인근	5/20	10,000	우인	5/20	10,000		한철수	5/15	10,000		
만보사	김정희	4/21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4/25	80,000	주건우	5/12	10,000		
	김정희	5/19	10,000	연명구	4/28	20,000	안한수	5/6	10,000			
밀인사	황갑용	5/11	10,000	자석사	도우	5/12	10,000	정휴영	5/2	10,000		
	박길선	5/12	10,000	지현	5/12	10,000	진여	5/2	10,000			
	덕광	5/12	2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4/28	80,000	권도연	4/28	50,000		
법성사	남혜	4/21	10,000	정각사	법일	4/21	10,000	이혜성	4/25	5,000		
	신말심	5/20	10,000		안한수	5/6	10,000	이인성	4/25	5,000		
장정숙	5/20	10,000	탁상달		5/12	10,000	이수영	4/25	10,000			
법천사	반야심	4/30	10,000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고맙습니다

총령 지성 대종사 <서울경인교구> 서울경인신정회지회 노진숙 지회장 외 회원 일동 **관성사** 법선 정사, 자성 전수, 신정회 이타심 회장 외 교도 일동 **밀인사** 덕광 정사, 보현 전수, 신정회 박수빈 회장 외 교도 일동 **법천사** 화령 정사, 신정회 안정혜 회장 외 교도 일동 **벽룡사** 원당 정사, 묘심해 전수, 신정회 양재범 회장 외 교도 일동 **시법사** 혜광 정사, 신정회 최인희 회장 외 교도 일동 **지인사** 범우 정사, 인지심 전수, 신정회 보현심 회장 외 교도 일동 **총지사** 록경 정사, 법수연 전수, 신정회 백귀임 회장 외 교도 일동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승원 정사, 묘원화 전수, 신정회 민순분 회장 외 교도 일동 **법항사** 인전 정사, 정계월 전수, 신정회 금강행 부회장 외 교도 일동 **혜정사** 진일심 전수, 신정회 성미옥 회장 외 교도 일동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법등 정사, 인덕심 전수, 신정회 차경희 회장 외 교도 일동 **건화사** 도관 정사, 신정회 윤효경(윤복자) 회장 외 교도 일동 **국광사** 일진 정사, 진여 전수, 신정회 최윤정 회장 외 교도 일동 **단음사** 신정회 권순복 회장 외 교도 일동 **선립사** 지명 전수, 신정회 이복선 회장 외 교도 일동 **수인사** 법상 정사, 정원 전수, 신정회 이남이 회장, 수인회 최민애 회장 외 교도 일동 **제석사** 시정 정사, 원만원 전수, 신정회 대해정 회장 외 교도 일동 <부산경남교구> 부산경남신정회지회 류길자 지회장 외 회원 일동 **관음사** 정인화 전수, 신정회 조은정 회장 외 교도 일동 **단향사** 지홍 전수, 신정회 박화자 회장 외 교도 일동 **덕화사** 법상인 전수, 신정회 윤숙희 회장 외 교도 일동 **밀행사** 금강륜 전수, 신정회 김현숙 회장 외 교도 일동 **법성사** 남혜 정사, 신정회 신혜영 회장 외 교도 일동 **삼밀사** 묘홍 전수, 신정회 박화자 회장 외 교도 일동 **성화사** 서령 정사, 혜원정 전수, 신정회 허태연 회장 외 교도 일동 **운천사** 우인 정사, 보명심 전수, 무명씨, 신정회 이성미 회장 외 교도 일동, 인간방생기금 **자석사** 도우 정사, 지현 전수, 신정회 이지은 회장 외 교도 일동 **정각사** 법일 정사, 자행정 전수, 신정회 문경순 회장, 황영순 자비회 회장, 강경중 단월회 회장, 안미옥 만다라 합창단장 외 교도 일동 **화음사** 행원심 전수, 신정회 강순란 회장 외 교도 일동